

한인회보

1990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가을 - 겨울



1975년에 허물고 이자리에 백담사에서 칠성각을 지었다. 눈이 덮여 초가집처럼 보인다. /강연구 사진집 내설악 너와집에서



미국 생활과 아이덴티티; 무엇이 문제인가?

생활 정보 / 미국내 사업 활동을 위한 법률환경

시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

끼리 모여 다니기를 좋아 합니다. 밖에도 노랗고, 속도 노랗지만, 확고한 주체의식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없고 피난처만 찾아 다니곤 합니다.

세번째 Group은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라다가 이곳에 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Group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특색을 잘 알고, 또 대부분 잘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존경한다든지, 그외 하는 행동을 보아 한국에 뿌리를 잘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동료 미국사람들로 부터 문화가 달라, 인정과 소속감을 갖는데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이 Group에 속하는 사람은 밖에도 노랗고, 속도 노란 사람들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2세들은 자신들을 각각 다르게 볼것입니다. 2세의 장래에 책임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 모든 2세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수 없는것이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외부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문화가 다른 이곳에 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얼굴과 외모는 고쳐 피할수 없고 한국 부모님의 자식들임도 피할수 없습니다. 한국 전통과 특색의 한 훌륭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 한국인의 특색 전통을 긍정적으로 받아 좋은것을 키워 나가면서 이곳 미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라온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꿈에서 기대에서 깨어나 지금 놓여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인 미국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한국인의 특색과 전통의 긍정적면을 자부를 갖고, 자신을 갖고 이 사회에 소개 함으로써 우리들이 설수있는 곳이 생기고 우리들이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뿌리를 갖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소속할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 2세, 3세의 장래를 추측 할려면 중국계, 일본계 이민 역사를 공부하면 많은 것을 배울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Joy Lunch Club이란 책도 도움이 되리라 믿읍니다.)

"1세의 꿈과 현실"

리아 암스트롱

(현 워싱턴주 대한 부인회 고문)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과 같이 흥금을 터놓고

토론하고 온것은 "우리 이민 1세의 꿈과 현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꿈과 현실의 Gap을 조금이라도 좁힐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제 생각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다같이 조국과 친척, 친구, 이웃들을 뒤로두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회의 나라"미국으로 이민올때는 우리세대 (1세)가 희생해서 그 댓가로 2세들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이민오는 것이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결론을 얻은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럼 우리의 공통된 꿈이란 어떤 것인가?

- 1) 자녀교육의 향상 (명문대학 입학)
- 2) 개인능력의 최대 발휘
- 3) 경제적인 성공
- 4) 정치적 불안에서의 해방 (가문, 빈부차이, 지방출신, 출신학교등)
- 5) 경우에 따라선 차별대우에서 해방
- 6) 부모 모시고 온 분들은 효도를 더 잘하고
- 7) 자유를 만끽하기 위함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 1) 개인의 능력을 최대 발휘하긴 고사하고 언어장벽에 부딪혀 영어로 대화도 유창하게 할수없어 자기능력에 한계를 몇번씩이나 느끼게 하며,
- 2) 한국문화와 가치관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문화와 미국인의 가치관의 적응은 극히 힘들기에 미국인과 섞여살긴 더욱 힘든일이고,
- 3) 사회구조도 한국과는 달라서 감을 잡을 수 없고,
- 4) 미국내에서 전쟁은 없으니 미국내 정치는 안정이 되었지만 세계 최강대국에 살고 있으니 세계정세에 더욱 민감해햐 겠기에 세계 일등국민으로 산다는것도 힘겨운 일이며,
- 5)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국민들보다 더욱 노력해야 하니 조그만 체구에 체력은 팔러 몸은 고달프고 넘어야할 장벽을 생각하니 정신적으로 부담감만 더해 가는데,
- 6) 우리의 이 엄청난 희생의 댓가로 2세들이라든 미국인들보다 더욱 성공시키기위해 자녀교육에 중점을두고 열심히 일관성있게 애들 공부를 시켜서 명문대학 입학하기를 애타게 바라고 그날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기란 한국 일류대학보다도 더 어려워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고,
- 7) 한국에는 가문, 출신학교, 빈부차이 등등 차별대우가 싫어 이민은 사람들은 "평등의 나라" 미국에서

도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하지못한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한국보단 덜 심한편이기는 하지만 빈부차이가 현저하게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것이 해결될것 같았지만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너무나 해결 못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8) 그리고 노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굳은 결심은 했건만 시간에 쫓기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노부모님들에게 Baby Sitter를 전담시키거나 아니면 한 집에 모시기 힘들어 노인 아파트에서 미국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시게하니 수천년 유교사상에 젖어 효도를 으뜸으로 여기는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날은 없습니다.

9) 자유를 만끽하려던 꿈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법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방종은 절대 금물이요 국법을 절대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따를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모두 처벌 받는 세계제일의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니 모든 행동 조차 조심해야 하니깐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원인이며,

10) 또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어떠합니까?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는 다민족이 살고있는 미국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민족끼리만 결혼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질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고 타민족과 아무 문제없이 생활해온 2세들에겐 타민족과의 결혼이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세가 미국 정착하느라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2세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와 장소를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한 관계로 더욱 더 동족간의 결혼은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서로 사귀어야 결혼상대가 되든지 않되는지 결정할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민 1세의 꿈과 현실에는 현저한 Gap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이 큰 Gap을 좁히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같이 그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합친다면 못해낼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둘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갈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그 우선 순위부터 하나 하나씩 성취해야 겠습니다. 셋째, 2세들에게 유형의 재산보다는 무형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 주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유형의 재산이란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무형의 재산이란 예를 들면

- a)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 b) 올바른 가치관의 적립
 - c) 한글 교육
 - d) 자신의 이익추구하기에 앞서 가진자보다 덜가진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줄수있는 마음
 - e) 모범적인 미국시민으로서의 생활등입니다.
- 비꾸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을 인격을 갖춘 훌륭한 한국계 미국시민으로 살수있도록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해주어야만 우리 1세가 미국 이민와서 희생한 보람이 있다고 믿으며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교포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2세들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겠읍니다.

Korean-American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김상민

UW 영어및 Asian-American Studies전공 3학년

현 시점에 우리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Korean-American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1.5세 학생들은 어느 "미국인" 못지않은 영어 실력이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즉, 대부분의 Korean-American들은 미국의 정치적 현상에 무관심하여, 투표도 하지 않고 Korean-American의 정치적 입장도 모르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부시 대통령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인권법안같이 Korean-American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치적 현안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같다. 그런고로 저는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잘활용함으로 의회에 "Korean-American"의 입김을 불어넣어 정책설립에도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것은 우리들이 수동적인 입장을 탈피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현재까지와 같이 수동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Korean-American민족집단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Korean-American가 어떤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현재 미국사회에서 우리 Korean-

American의 지위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들과도 다르고, 미국인들과도 다르다. 우리들은 전혀 새로운 한국사람들이며 미국사회에서는 극히 짧은 역사를 지닌 민족집단이다. 우리들은 미국 사회에서 한 민족집단으로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곧 한국인 및 미국인의 두 identities가 융합된 Korean-American라는 어휘를 사용해야하고 그말의 의미를 꼼꼼히 음미해야할 때가 닥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국이 한국인을 위시한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등을 포함하는 전체 아시아 민족집단이 더 잘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심신을 기꺼이 투자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첫걸음이 되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들이 협력하여 한 Korean-American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한국 문화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곳에서 배운 긍정적인 문화 요소를 받아 들이기에 인색해서는 안되며, 이런 여건이 성취되지 않는한 우리들의 커뮤니티는 분산된 채로 존재할 수 밖에는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시아인 인구는 전체 미국인구의

2.6% 밖에 되지 않지만, 서기 2천년이 되면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Korean-American는 약 13%, 1백 32만여명이 될것이다. (Kitano&Daniels, 1988).

따라서 현재 우리들은 Korean-American역사의 일대 전환점에 서있는 것이다. 즉 우리들의 노력하에 따라 우리들의 사회,문화적 장벽을 타파하고 우리 자신들을 Korean-American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Asian-American 및 Korean-American의 이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대세에서 밀려나고립된 커뮤니티로 밖에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글 제목 "Korean-American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에 대한 답변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해야할 것"은 첫째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둘째 민족 의식과 커뮤니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며 마지막으로 과연 자신은 Korean-American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할 자세가 되어있나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itano, Harry H.L. and Daniels, Roger. 1988. Asian Americans. Emerging minorities. pp. 160-161.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미국내 사업활동을 위한 법률환경

- 한국 상사지사 대표자들을 위한 강연 -



로버트 에이 베스커빌 변호사
데이비드 라이트 트리메인 법률회사
워싱턴주 한미 무역 협회회장

1. 머릿말

한국 상사지사 협의회 회장님, 회원 여러분, 저에게 이처럼 귀단체 앞에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빈틈없고 경험이 풍부한 사업 경영인들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취지는 미국의 법률환경속에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는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미국인들은 법률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여러가지 법이 많고 법정도 많으며, 변호사도 여간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 라이트 트리메인 법률사무소만 해도 230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씨애틀에 사무실이 있고, 워싱턴 D.C.에 사무실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앵커리지, 벨뷰 그리고 리치랜드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세법 전문변호사와 비지니스관계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관계법 전문 및 이민법 변호사들이 있으며, 또한 고용관계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건축관계법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모든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 변호사들이 도대체 다 무슨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 행동할줄 모르는가? 법률에 근거한 관계 대신에 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한국에서는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일단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면,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한 문제해결을 서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뼈아프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이처럼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동질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같은 반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계속 같이 사용 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인도하는 여러가지 원칙들에 대하여 대개 서로 일치된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쟁들은 대략 법정에 가지 않고 서로의 절충으로 해결됩니다.

반면, 미국인들(저는 재미 교포들도 이 범주에

벨. 오코너.
홀레근하이머 & 리영 합동법률
Bell, O Connor, Flegenhimer & Leong Law



이민, 비 이민, 비자업무, 이혼, 양자, 유언등 가정문제, 사업, 보험, 근무중 상해보상, 교통사고보상, 음주운전, 소송

한국어통역, 번역 & 상담
각종법률서비스 - Mrs. 송

Seattle : (206)621-8777
Tacoma: (206)927-4518
119 1st Ave. S. 5th Floor Seattle, WA 98104

WELCOME BACK!
BEST HONG KONG
STYLE CUISINE
INTHE U-DISTRICT!

House Specialites

- * Curry (Chicken \$5, Pork \$4.50, Beef \$4.50)
- * Satay (Pork, Beef, Chicken \$6)
- * Singapore Fried Mei-Fun (\$4.50)
- * Hong Kong Style Pan Fried (Chicken, Pork, Beef \$4.50)

10% off any dinner item with this advertisement
;including special (Expires 1/31/91)

HONG KONG GOLDEN
CITY RESTAURANT
☎ 633-4305 ☎

4228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05

포함시키고 싶습니까)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모든 인종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최근의 일이며 그들의 모국문화나 모국언어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스리는 원칙 또한 다양합니다. 다만 한가지 점에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양한 여러 주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헌법에 대한 존경의 원칙입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도 다를 수 있는 다른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은 법의 원칙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업관계에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과 같은 커다란 시장에서 현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는, 철학 상호 현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지더라도 공동 문화나 공동 모국언어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이 그들에게 공동 문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비지네스맨들이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 것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스포츠에 관한 큰 흥미, 스포츠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 스포츠를 실제로 하고, 노후에까지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합니다. 미국의 많은 사업인들이 비지네스를 스포츠맨의 경기처럼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이를 사업 인들에게는 비지네스란 어떤 체계적인 규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일종의 경기입니다. 그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규칙에 승리하여서는 기쁨을 하는 한 그들은 실패를 받아드릴 태세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규칙은 법의 규칙입니다.

2. 연방제도

미국의 비지네스 게임이 복잡한 이유의 하나는 연방제도 때문입니다. 이 주들은, 특별히 중앙정부에 위임하지 않은 모든 권력을 보유한다는 조약에 위임하지 않은 모든 권력을 보유한다는 조약에서만, 서로 힘을 합하고 그들의 개별적인 주권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권력은 주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헌법에 기록된 것을 끝입니다. 반면, 주는 특별한 위임하지 않은 모든 권력을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법률들은 주법입니다. 계약법, 회사법, 부동산법, 사유재산법, 사업면허법, 형법 및 여러가지 세법들이 그 예입니다. 각 주는 자체적인 주 헌법과 입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주마다 다릅니다. 때때로 주사이에 통일된 법률 채택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도, 각 주는 그 자체의 법원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해석도 주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정부는 주로로부터 주재 및 국제 상업거래하는 권한을 받았습니까. 연방 단독법 및 국제 무역법, 특히 사업관계에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과 같은 커다란 시장에서 현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는, 철학 상호 현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지더라도 공동 문화나 공동 모국언어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이 그들에게 공동 문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비교적 최근인 근세기 1910년 대에서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까.

연방 법원제도는 연방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며 서로 다른 주의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주 법정과 중복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한 사건은 연방법정 또는 1개주 이상이 법정에 재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들의 "법정 고르기"가 가능합니다.

3. 법정쟁소를 피하기

비지네스 게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사를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의 법정쟁소는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원사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비와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진 것 같은 기분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작은 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의 한 회사를 변호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판기전의 재판에서 미국회사는

3백만불을 청구했는데 배심원단은 한국회사에게 1백2십만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의 법률회사가 이 사건을 받아 제 2차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심원은 그 미국회사가 50만불의 보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러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외국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작은 미국회사에 작용하는 감정적인 호소력은 강했습니다. 저는 배심원들이 한국회사에 대하여 편견적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저의 고개회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승격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심원 재판은 마치 유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미국측이 이미 미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까. 계약서는 미국측의 변호사가 작성했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미국측에 유리하게 만든 서류였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영문이며서 과연 한국측 회사인들이 그 계약언어를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측에서는 계약서류의 사소한 내용에 신경을 쓰면서, 법적인 조언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장래 협조분위기와 상대방과의 친밀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측을 한국에 초청하여 상당한 시간과 돈을 쓰면서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이라는 것이 법률적 관계인데도 한국측에서는 인간적 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측은 볼ley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측은 야구를 하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한국측이 처음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이 일종 추진했다고 한번 가절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소송을 방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측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한국측에 상당의 불리한 언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유은한미국의

유은한 미국의 사업관계 전문 변호사가 이 계약을 보았다면 그런 불리한 용어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법제도하에서는,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심판자이고 판사는 법률에 대한 심판자입니다. 불리한 언어사용은 근거로하여 판사는 이 사건을 배심원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 불리한 언어가 계약서에 없었다면, 판사는 불리한 언어사용을 근거로하여 판사는 법률적인 토대하에서 이 사건을 기각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희망이 없었다면, 청구인(원고)측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한국측은 증거를 명시한 계약상의 용어를 고집하면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처음 계약이 형성되고 있을 때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과다한 비용을 소비하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한국상사들이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거액의 돈을 써야만 하게 되었거나 또는 시초에 규약에 의한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거래가 최근 여러건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기에 법률자문을 받고 거기에 적절한 계획을 세웠다면 경비가 많이 드는 법률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4. 알맞는 법적 조직체계를 선정하기

사업활동을 위한 알맞는 법적 조직체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의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보상책임의 한계, 세금부과, 미자 취득 가능 성, 투자유치의 용이성, 고용 및 고용인 대응조건, 사업의 장래 성장계획, 사업제 및 그 자산 매매의 용이성등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체의 법적 구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 소유업체 (Sole Proprietorship)

개인 소유 사업체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형식을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업

체는 관리하기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들고, 현재 개인에 대하여 법인체 보다 세율이 낮으며, 나중에 법인체나 파트너십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일차적인 단점은 책임한계가 무한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지 않고 있고 커미션을 받으며 일하는 상인은 보험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개인소유업체로 경영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나) 무한책임 파트너십 (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 파트너십은 아주 신축성이 큽니다. 이 사업체는 일차적으로 계약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파트너(동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또한 이윤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등을 창의적으로 조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체 일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무한책임 파트너십 일수도 있습니다. 미국내 많은 사업들이 무한책임 파트너십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개인 소유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 파트너십의 제 1차적인 단점은 책임의 한계가 무한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파트너들로서 주식회사로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장점중의 하나는 연방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금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부과되거나 회사자체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과세가 없기 때문에 무한책임 파트너십은 주식회사보다 더 영리적일지도 모릅니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무한책임 파트너십은 주정부에 법인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유한책임 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에는 최소 1명의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파트너(unlimited partner)를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는 자기 투자범위에 한하여서만 책임을 가집니다. 파트너중 1명이 적극적 사업관리자 역할을 하고 나머지 파트너들은 소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경우, 유한책임 파트너십을 조직하는것이 유용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가진사람들이 부동산 사업 운영 기술을 가진 사람과 사업을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업구조가 아주 보편적입니다.

무한책임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회사도 연방정부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회사와 그 이사들 및 간부들은 주정부에 등록 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1명 또는 1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일 주주 및 단일 이사가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이 워싱턴주에서는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즉 주주의 책임을 자기 투자액수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단점은 주식회사가, 아래에 설명된 "S" 주식회사로서의 납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한, 연방정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는 실체라는 점입니다.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연방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현재 34%입니다.

(마)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만약 주식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모두 미국 거주자인 주주 35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S 주식회사로 과세될 수 있도록 세법상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 주식회사의 장점은 주주들에게 제한된 책임을 부과시키면서도 연방 소득세의 납세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신축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심해야 될점은 주주 모두가 미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외에도 또한 달리 S 주식회사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S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모두가 과세대상체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이 두 실체를 적당히 조합시키는 방법을 택하여 자산을 소유합니다. 달리 말하면, 각 주주가 개별적으로 S 주식회사를 구성한 후 하나의 파트너십의 파트너로 사업자산을 소유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은 구조적으로 3단계의 수준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의 측면에서는 오직 1단계의 수준에 있을 뿐입니다.

5. 과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인생에 두가지 확실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세금이 더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과세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세금은 죽지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인들은

죽음은 무시해버릴 수 있을런지 모르나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 연방 소득세

연방세는 개인과 주식회사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개인에 대한 과세율이 최고 28%이며, 주식회사에 대한 최고 과세율은 34%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산 매각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과 기타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율에 차이가 없으나, 대통령은 자산 매각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도록 입법해 줄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 주식회사와 한국인 거주자가 미국내에서 취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소득이 미국내의 고정 사업장과 연관되는 한계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정 사업장이란 지점 또는 계약체결권을 포함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존재와 같은 고정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거주자의 고정 사업장에 관계되는 사업소득세율은 미국인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즉, 개인에 대하여서는 28%이며 주식회사에 대하여서는 34%입니다.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고, 이익배당, 로얄티, 또는 임대료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미국 원천소득은 법규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한 원천징수 됩니다.

(나) 연방 유산세 및 증여세

미국에서는 사망 또는 증여에 의하여 넘어가는 재산에 대하여 그 가치의 55%까지 연방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관계없이 유산세와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않은 한국 시민권자는 미국내에 있는 소유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간에 유산 및 증여세에 관한 조약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이 한국과 미국 양편 모두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그 세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 주 및 지방세

미국의 각 주는 사업에 주세를 부과하는데 그

종류는 주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워싱턴주는 개인 또는 법인체의 수입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수의 몇개 주중의 하나입니다. 워싱턴주는 거의 모든 사업체의 총 수입금 (예를 들면, 임대료수입은 예외)에 대하여 사업 및 직업세 (business and occupation)를 부과합니다. 세율은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비스 업종에 대한 현행 세율은 1.5%이며 도매업에 대한 세율은 0.5%보다 약간 적습니다.

워싱턴주가 부과하는 사업관계 세금에는 또 소매세(약 8%)와 부동산 양도세(약 1.5%)가 있습니다. 부동산세는 1년에 약 1.5%정도입니다.

많은 경우 각 지방정부는 주세에 대하여 자체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씨애틀의 씨비즈니스업에 대한 사업 및 직업세는 주 및 지방정부의 과세를 모두 합하여 1.85%가 됩니다.

각 주는 국제 및 주체상업 및 주 밖에서 수행되는 사업활동에대하여 과세를 못하도록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세및 국제간의 사업활동에 주세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용철·박성수 합동공인회계법인
Kim & Park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S.

세무·회계·감사·경영지원

Union Point Center, Suite 105 11545 15th N.E. Seattle, WA 98125
Tel (206) 363-5730 Fax (206) 362-4522

INTERNATIONAL PRODUCTS CO.
國際塑膠產品公司

Mena Heur

李 夢 玲

Plastic Bags & Restaurant Supplies Center
674 S. WELLER ST., SEATTLE WA 98104 (in Chinatown)
TEL: (206) 621-8863
FAX: 206-621-0502

601 S. ANCOVER ST., SEATTLE, WA 98108
TEL: 206-621-0319
FAX: 206-621-0421

6. 사업 비자

외국인 사업자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라 비자의 취득가능성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가) 임시 사업방문 비자 (B-1). B-1 비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고자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B-1 비자 발급에 따르는 제 1차적인 조건은 미국에 임시 체류기간 동안 미국의 수입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됩니다.

(나) 조약 무역자 (E-1) 및 조약 투자자 (E-2).

한국과 미국간의 조약에 따라 "E" 비자의 발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E 비자종목은 미국과 상당한 정도의 무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E-1") 미국에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E-2") 한국인들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 비자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다) 사내 전근자 (L-1). L-1 비자는 회사의 중역, 전문직 및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 입국 직전 1년동안 계속적으로 미국 현지회사의 본사, 방계회사 또는 종속 회사에 의하여 해외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의 방문목적은 해외회사에서 수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지식을 요구하는 고급 경영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L-1 비자는 1년동안 (새회사) 또는 최초 3년동안 유효하며, 5년 또는 6년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라) 탁월한 공적 및 능력을 가진 외국인 (H-1). "탁월한 공적 및 능력"이라는 말은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직업은 (엔지니어, 교사, 건축가, 변호사, 의사 등 처럼) 구체적인 증거없이도 전문직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경제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회계사, 사서 및 기타 많은 직종과 같은 직업은 해당 케이스 별로 전문성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활동에 종사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위가 요구됩니다.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위치에 있고 지도적이고 권위가 있음이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H-1 비자는 3년간 받을 수 있으며, 제 2차로 2년간 (또는 특수한 사정하에서는 3년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임시 서비스 또는 노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H-2). H-2 비자를 취득하려면, 외국인은 해당 서비스 또는 노동이 임시적인 것임을 입증하고 노동성으로 부터 임시 노동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성은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고 또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인하여 미국내에서 이와 비슷하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H-2 비자는 1년동안 까지 발급될 수 있으며, 미국내 중단없는 지속적인 체류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12개월 씩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H-2 비자를 연장받을 때에는 새 노동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에게 E, L-1, H-1 또는 H-2 비자가 승인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들에게 E, L-2 또는 H-4 비자가 각각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바) 이민 비자. 한국 시민이 이민 비자를 취득하려면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친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이민자 및 직계 친족을 제외하고, 모든 이민자는 전 세계적인 한도량인 270,000개 비자의 한계내에 속하는 쿼타 이민자입니다. 이 쿼타는 6종목의 "우선순위" 로 분류되는데, 그 각 순위는 총 비자숫자 중에서 법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백분율로 배정됩니다. 여기 가운데 제 3 및 제 6 순위는 고용에 관계되는 종목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을 근거로하여 영주권 자가 되고자하는 한국 시민은 먼저 노동성으로부터, (가) 해당 직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격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으며, (나)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급료 및 노동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노동증명서를 얻어야 합니다. L-1 사내 전근자의 자격을 가진 회사의 중역 또는 고위간부에게는 노동 증명서 요건이 면제됩니다.

7. 고용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미국에서 연방 및 주법 모두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한국의 고용주들은 그들의 피고용인을 유교적인 원칙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나, 미국의 고용주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년에 들어와 특히 차별대우 분야의 고용관계 법정쟁소 사건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 차별대우 고용주는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종교, 출신국, 불구 및 결혼상태들을 근거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채용면담중에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여서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만약 그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인종, 연령, 결혼상태 또는 기타 금지된 사항을 근거로 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고용주가 미국내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국본사의 정책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고용주가 비서를 채용할때, 그 비서가 결혼을 하던가 임신을 했을 경우 사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정책은 미국의 차별대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노동조합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지난 30년간 점점 약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노조화된 조동력이 20%도 못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활동이 있는 곳에는 법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결성에 관계되는 법규정을 무시하는 고용주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 안전 및 보건법 고용인들의 안전 및 보건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이 법에 따라 어떤 직종의 고용인들에게는 안전 장비와 안전의류를 반드시 착용케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및 그로인한 급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준비금을 고용주가 예치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는 실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자금의 일부는 고용주들의 부담으로 조성됩니다.

(라) 고용자들에 대한 부가혜택 (Employee Benefits)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의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소셜 시큐리티 제도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제도를 제외하고는 고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가혜택 플랜들은 거의가 각 기업체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마련됩니다. 고용주들은 이런 플랜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법적으로 이직하는 피고용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약중에는 그러한 혜택을 주기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가혜택의 제공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 의하여 무겁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8. 환경보호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는 모두 공기와 물과 땅을 정화시키려고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인들은 환경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은 사업주 및 경영자들에게 오염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인들은, 특히 환경오염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권을 구입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이권을 매입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새 소유자는 비록 그런 오염의 발생에 자체에 전혀 상관이 없어도 일단 매입했을 경우에는 오염정화비용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주유 시설이 부착된 소규모의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또는 세탁소를 매입한 사람은 나중에 고객의 오염정화비를 책임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9. 법률적인 배려에 따라 미국에서의 사업을 조직하기

미국법이 기업체의 설립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위하여 예를 한가지 들어 보기로 합시다.

한국에 있는 어느 가족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한국내의 한 사업체가 미국에 그 활동을 확장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회사의 회장은 그의 장남을 이미 워싱턴 대학교에 유학시켜 추후 미국내의 경영을 담당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아들에게 한편으로는 투자를 목적으로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집을 한채 사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내에 현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사업인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일종의 합작 투자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현존 사업체는 현재 재정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새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회장은 그의 시간의 절반은 미국에서 보내고 싶어하나, 미국의 이민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을 미국의 영주권자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10. 결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사업에 적용되는 미국의 법률 체계를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지네스는 하나의 게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규칙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칙들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정역모 법률 사무소

Kevin Y. Jung
Attorney at Law



유능한 변호사의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역모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 ✓ 세금 관계
- ✓ 이민 비자 관계
- ✓ 재산 및 유서관계

✓ 사업 관계 (에스쿠로, 비지네스 매매 또는 계약, 새 회사 또는 사업 설립)

Suite 2501
999-3rd Ave.
Seattle, WA 98104

(206)292-6333

은행 용자를 얻으려면

- 문답으로 풀어본 기본지식 이것저것 -

미국은행의 문턱도 높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착실하게 크레딧을 쌓고, 금융의 메카니즘을 알고 나면 아무런 벽도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와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당장 부닥치는 어려움중의 하나인 크레딧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낯선 나라라는 것을 실감케하는 하나의 벽으로 느껴진다.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은행인데 은행에서는 늘 크레딧을 따진다. 도대체 그게 귀찮아서 많은 교포들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면 미국에와서 5년이 넘어도 크레딧이없고, 막상 집을 산다든가, 큰 사업을 벌릴때, 은행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크레딧이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치아픈 것은 아니다. 그메카니즘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되어, 당신이 이땅에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 한국에서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현금없이 집이든, 자동차든 은행에서 용자한 돈으로 살수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사실 말처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것 같은데... 크레딧이란 무엇인지?

답: 크레딧이란 흔히들 신용이라고 말하는데, 은행의 입장으로는 우선 고객을 알아야 한다. (We have to know the customer.) 친구끼리도 돈을 빌려줄때 그 친구가 믿을만 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나? 돈이 있어도 안 갚을 인간성은 아닌가? 등을 생각하게 된다. 은행도 마찬가지 이다. 미국은 아주 안정된(Stable) 사회임에 틀림 없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계획(financial plan)을 짜서 그에따라 살아가면 크레딧은 저절로 쌓여 지게된다.

*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처음 이민와서 당장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현금으로 몇천불주고 차를 사면 크레딧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고, 그렇다고 카론(Car Loan)을 신청하면 크레딧이 없다고 용자가 안된다. 그런데 크레딧이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답: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그럴 경우

*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처음 이민와서 당장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현금으로 몇천불주고 차를 사면 크레딧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고, 그렇다고 카론(Car Loan)을 신청하면 크레딧이 없다고 용자가 안된다. 그런데 크레딧이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한것 같은데...

답: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래 사신 친지, 크레딧이 좋은 분의 Cosign을 받으면 되겠다.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연대 보증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꼬박 꼬박 지불 일시를 잘 지켜나가면 크레딧이 생기기 시작한다.

* 그럼 좋은 크레딧을 쌓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먼저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것보다 한은행에, 비즈니스 어카운트, 체크, 세이빙, CD(Certificate of Deposit),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크레딧 카드를 상당기간 거래를해서 Account Relationship을 맺어 좋아야한다. 은행에 크레딧을 쌓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Cash Reserve같이 필요시 사용할수 있는 Loan을해서 이자를 지불하며 기간내에 갚는것도 좋다.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용자를 할수가있고 그렇게 해서 크레딧이 쌓인다. 먼저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면 은행이 당신에게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좋은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개솔 린빌이든, 백화점에서 온 빌이든 각종 페이먼트를 제때에 꼬박꼬박 잘 지불해야 한다. 은행에서 크레딧 조사를 할때 흔히 신용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만큼 꼭 지불기일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하나 덧붙일 것은 부도수표를 내지않아야한다. 물론 고의적으로 내는 경우야 없겠지만, 금전출납관계를 잘관리하여 자신의 크레딧에 마이너스가 가지않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흔히 교포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No Bounce Checking은 아주 중요하다.

*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은행이란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절대 필요로 하는 기관이며 또한 원래 돈을 이용하여 수입원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은행측의 입장을 말하면 한 어카운트에서 최소한 연간 \$400은벌어 야인건비, 서류처리, 컴퓨터 사용등 Operational Expense가 나온다. 개인일 경우에 체킹에 \$2,000 세이빙에 \$1,000 최소한 \$3,000정도 평균 유지하면 좋다. 비즈니스 어카운트일 경우에는 최소 \$2,000 이 있어야 어카운트를 열수 있고, 그리고 최소 평균잔고가 \$5,000-\$10,000정도 유지하면 은행 으로서는 어느정도 이익을 본다.

* 비단 처음 온 경우가 아니라도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처음 은행을 찾아가 어카운트를 열자면 여러가지 요구 사항이 많고,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 돈 갖다 맡기면서 기다리게 하니 별로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답: 은행은 앞에서 말했듯이 고객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되는것은 고객을 잘몰라서 오는 결과의 하나로 보고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되었을때 알아 두면 편리한 것은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새로 옮겨갈 은행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것이다. 같은 은행의 지점이 그곳에도 있으면 간단하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옛 은행으로부터 추천서(Recommendation)를 받으면, 새 은행과 거래를 시작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또 이사갈때 유의할것은 거래하던 은행의 어카운트를 클로즈하겠노라고 미리 은행에 통고 하면 된다. 이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으면, 서면으로 클로즈 하겠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는 계속 수수료(Service Charge)가 가산되어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강제클로징(Forced Closing)이 되면 크레딧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 할일이다.

* 그러면 일단 크레딧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말씀하신 사항에 유의하여 좋은 크레딧을 갖게 되었을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무엇보다 너무 힘에 겹게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 크레딧 카드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 플라스틱 카드위력에 도취되어 공짜인것처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상이란 언젠가 꼭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명심하고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빚이든 세금을 댄 실수입의 20%가 넘으면 위험신호가 오리라고 본다. 달리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생활비, 말하자면

음식비, 피복비, 주거비를 지출한뒤의 수입에서 1/3이상은 빚을 지지않아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상 당장 꺼내 쓸수있는 얼마간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흔히들 최소 2-3개월 봉급액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의 수입원이 되는 가장의직장이나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되어있나 하는 것에 따라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지불하기로 합의가 된 빚은 잘갚아 나가야 하는것은 다시 말할필요가 없겠는데 이때 당신에게 현실적으로 알맞게 스케줄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봉급일이 15일인데, 매달 12일까지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현명한 조치라고 할수 없다. 그리고 때로 당신의 크레딧이 컴퓨터에 잘못기록되는 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는데, 지불이 안된것으로 기록되는 수가 있다.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의해 만약 어떤 크레딧을 신청했을 때 거절되면(Deny) 뭐가 잘못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본인이 모르게 크레딧 기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는데...

답: 소비자 보고(Consumer Reports)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것은 크레딧 담당 부서에서 수집한 크레딧 리포트(Credit Report), 크레딧 히스토리 (Credit History)로서 당신의 크레딧어카운트, 빚을 지불하는 습관등의 정보를 당신에게 크레딧을 준 크레디터(Creditor)측에서 수집하는 자료이다. 별로 비용이 들지않는 만큼 은행, 상인, 크레딧카드 회사등에서 매일 수천명이 문의 해온다. 다른 소비자에 관한 보고서는 조사보고(Investigative Report)다. 보통 보험회사나 직장등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각개인의 성격, 평판, 생활방식 등을 알아는 제3자로부터 개인적인 인터뷰를 해서 얻은 자료이다. 그런데 물론 각개인은 언제 그런 보고에 관한 조사가 있을것이라는걸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사는 경비가 많이드는 만큼 흔하지는 않다.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각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에 정확을 기하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법에 의해 크레딧보고를 하는 에이전시의 이름과 주소를 알수 있고 과거 6개월간 (취직문제에 관한 한 2년간) 당신에 관한 모든보고에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알수있다. 또한 크레딧을 신청했는데 거절(Deny)되었을때 그 이유를 알

아 볼수 있다. 그리고 당신에 관한 정보중에 7년전의 것은 들추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파산의 경우에는 14년간 보고 되도록 되어있고 만약 4만불 이상의 보험이나 용자를 신청했을때, 또 2만불 이상의 봉급을 받는 직장을 구할때는 시간적인 제약없이 옛날 일까지 조사할수 있다. 용자(Loan)한 것을 갚지 않으면, 영구히 따라다니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다.

* 용자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대개 한도액은? 답: 용자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Personal Loan \$ 1,000-\$ 25,000
 - Auto Loan \$ 5,000-\$ 20,000
 - Morgage Loan 제한이 없음.
 - Home Improvement Loan \$ 15,000-\$ 20,000
 - Federal-State Guaranteed Student Loan \$ 2,500(연간)
 - Check Loan \$ 500-\$ 5,000
 - Credit Card Loan \$ 500-\$ 5,000
- 그밖에 일반 비즈니스 관계용자는 규모가 다양하다.

* 비즈니스하시는 교포들이 가장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소기업을 위한 Loan이겠는데, 그 관계를 좀더 자세히 말해 주시요.


답: 네. 용자 범위는 방금 말씀 드렸읍니다만, 그 용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대개 세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 2년간 비즈니스에 종사한 크레딧이 있고, Inventory가 있으며,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할때. 둘째 용자를 해서 당장 돈이 들어 온다는 것이 확실할때, 예를들면 용자한 돈으로 물건을 사서 곧 팔릴수 있는 재산성이 있다든지 받을 돈이 많이 있을경우(Account Receivable), 셋째 Business Equipment를 담보로해서 용자를 하는 경우 등이다.

* 담보용자는 대개 어느 정도 까지 가능 한가?

답: 보통 담보물의 80%까지 가능하다. 담보물을 잡히고 용자하는 것은 가장 흔하고 그런데 미국 은행의 특징은 크레딧이 좋으면 담보가 없어도 용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봉급 생활하는 분에게 가장 큰 용자는 아마 집을 살때가 되겠는데, 그 Mortgage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

답: Mortgage 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데 대개 적용하는 공식이 있으며 본회지에 게재된 주택용자(김동호씨 기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NITED SAVINGS AND LOAN BANK

Now 4 offices to serve you:

Home Office
601 S. Jackson
Seattle, WA 98104
624-7581

Jackson Park Branch
14360-15th Ave. N.E.
Seattle, WA 98125
365-8200



Campus Branch
1200 N.E. 45th Street
Seattle, WA 98105
632-3322

Beacon Hill Branch
2800 Beacon Ave. So.
Seattle, WA 98144
324-1884



For your real estate needs in Greater Seattle and Eastside

Call

Kiyoko Miyoshi-Hall
(三好京子)

ERA-Mc Cormick & Naslund Realty, Inc.
11885 98 Ave. N.E. Kirkland, WA 98034

Office: (206)823-8800

Home: (206)784-5933

Member of Multiple Listing Association

주택융자



- 김동호 -
(김동호 융자 대표)

부동산, 특히 자기가 사는 가옥에의 투자는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큰 투자이다.
주택융자신청을 할때 알아야 할 점들을 항목별로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융자회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다. 융자신청은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하면 일을 하지 않고, 중개료만 받아 먹는 것으로 한국사람에겐 인식이 나쁘게 되어 있으나 주택융자는 은행으로 직접 신청하는것보다 여러 은행의 융자정보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큰 모기지 브로커 즉 모기지 회사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큰 모기지 회사는 자체의 자금으로도 융자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수 많은 타 융자 회사의 대리점으로 되어있어, 직접 은행으로 가서 얻는 이자율과 같거나 보다 더 좋은 융자를 알선해 줄수있기 때문이다. 즉 큰 모기지 회사는 도매 가격으로 해당은행과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이 은행으로 직접가서 얻는것과 같은 이자율과 융자조건으로 그은행의 융자를 알선해 줄수있다.

융자신청할때 브로커를 통해 해야할 다른 이유의 하나는 만약 융자 심사시 실적이 되는 경우, 큰 모기지 회사는 대리를 하는 타융자회사가 많으므로 정보도 다양하며, 경험이 많아 어려운 처지라도 융자를 받아 낼수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 연방정부프로그램(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VA-Vetrans Administration)과 비연방정부프로그램(Conventional Program이라고도 함).

* 고정이자 모기지, 유동이자 모기지.

고정이자 모계지는 다시 30년, 15년, 7년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동이자 모계지(ARM-Adjustable Rate Mortgage)는 다시 고정이자로 전환할수 있는냐의 여부로 Convertible이나 Nonconvertible이냐로 분류할수 있고, 유동이자자는 이자율이 얼마나 자주 조정되느냐에 따라 6개월, 1년, 3년, 5년짜리 유동 이자 모계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정이자 모계지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유동이자자의 성격을 가지는 Buydown(1%, 2% 혹은 3%의 낮은 이자율로 일단 집을 사게하고 입주한후 점차적으로 매 6개월 혹은 1년마다 1%씩 이자율을 높이는 프로그램) 이라든가 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시작하여 5-6단계로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올리는 Graduated Payment 모계지(GPM)도 있다.

매주 2주마다 지불하는 Bi-weekly프로그램도 있으며, Baloon Payment Mortgage는 5-7년내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던지 기간이 끝날때의 물가지수가 처음 융자를 받았을때보다 적정의 선을 넘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30년짜리 고정이자 모계지가 되는것도 있다.

기타 극빈자로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을 위한 State Housing Bond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융자액이 \$ 187,450이상인 점보융자도 있다. 융자 신청자가 그집에 거주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Owner Occupied, Nonowner Occupied로도 분류하는데 각프로그램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 및 융자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혼동하기 일수이다.

유동이자자는 어떤 지수에 기준을 두어 변하게 할것이나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겠고 마진을 Prime에 얼마나 첨가해서 산출하게 되느냐로도 분류할 수 있겠다. 고정이자도 이자율이 주택시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융자를 융자수속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변하지 않도록 Lock-in(자물쇠로 잠군다는 뜻) 하기도 하는데 보통 10일, 45일, 60일, 90일동안 Lock-in할수있으며 Lock-in기간이 길면 길수록 융자회사가 손해볼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수수료를 첨가하게 된다.

이자율이 일단 Lock-in되면 시장이자율에 관계없이 Lock-in된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 보통이며 Lock-in을 할때 Lock-in 수수료를 미리 받을 경우엔 융자가 거절되었을 경우엔 이 수수료를 돌려 받게 된다.



햅쌀 국보출하!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역시 밥 맛은
국보쌀입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국보쌀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금 가까운 한국식품점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KOKUHO ROSE
NOMURA & COMPANY
Exclusively Distributed By **SEASIA**
WHOLESALE ORIENTAL MERCHANDISE

Discount Point란?

주택 용자회사에 오늘 이자가 얼마냐고 문의를 하면 이자율이 얼마라고 쉽게 대답을 못하는것을 종종 보는데 이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마다 이자율이 다르고 또 Discount Point라는 수수료가 있어 이 수수료를 내면 싼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Discount Point혹은 Point는 용자회사에서 시장가격보다 싼이자율로 용자를 해줌으로써 그 차액을 선금으로 미리 내야되는 선이자로 생각하면 되겠다.

시장이자율이 10%일때 9%짜리 이자용자를 얻으려면 4~5%를 수수료로 더 지불해야 하는것이 보통이다. Discount Point로 지불한 수수료는 주택을 구매할시는 전액이 그해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나 재용자 일시는 용자상환 기간동안 분할되어 공제가 된다.

Junk Fee는?

용자 신청을 하게되면 용자에 드는 여러가지 경비를 항목별로 계산한 견적서(Good Faith Estimate)를 받게되는데 여러가지 경비중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있는가 하면 Junk Fee라고해서 경우에 따라서만 부과를 하는 비용이 있다. 주택 용자시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 용자 수수료(Loan Origination Fee).
- Discount Point Fee
- 신용조사 보고서(Credit Report).
- 감정료(Appraisal Fee).
- 에스크로 수수료(Closing Fee).
- 등기보험료(Title Insurance).
- 등기기록료(Recording Fee).
- 부동산세 지불확인 서비스료(Tax Service Fee).
- 홍수위험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서 발부료(Flood Certification Fee).

용자수수료는 각 용자 회사마다 다르나 대개 용자액의 1%를 받는것이 보통이다. 감정료는 건당 \$250~350이 보통이며, 신용조사 보고서는 \$55~70, Self Employed일때는 Business Credit Report도 함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15~140소요된다. Escrow수수료는 Settlement Cost라고도 하는데 주택의 판매가격에 따라 정해지며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주택판매액의 약0.5% 정도이다. 등기 보험료는 주택판매 가격의 약 0.14% 정도이며, 등기 기록료는 건당 \$25, 부동산세 지불확인 서비스료는 \$65, 홍수증명서 발부료는 \$5가량 소요되나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Underwriter란?

용자를 허가 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을 Underwriter라고 하는데 Underwriter가 검사하는 결정적인 점이 4가지가 있다.

첫째, 감정가격을 검사한다. 해당 용자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지, 감정가격은 얼마로 산출되었는지, 혹은 건물의 구조에 하자가 없는지를 감정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다. 해당되는 부동산과 가장 비슷한 여건의 주택중 최근 6개월 안에 판매된 주택을 최소 3개선정, 비교하여 감정가격을 산출하게된다.

감정보고서는 보통 3개월 유효하며, 감정경비는 건당 \$250~350이고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수선이 완료되지 않았을때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매 방문시 \$50~60을 부과하게된다. 용자액은 감정가격에 준해 정해지게 된다.

둘째, 권원을 검사한다. 해당 부동산이 판매자것인지, 소유권은 명백한지, 담보나 질권이 설정되지나 안았는지를 면밀히 검사한다.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해결후에나 용자를 허가받게된다.

셋째, 신용조사 보고서 (Credit Report)를 검사한다. 과거 7년동안의 신용기록을 상세히 조사하는데 이 신용조사 보고서는 Late Payment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번이나 또 얼마동안이나 지불이 지체되었는지, Collection Agency에 넘겨졌었는지, 법원의 판결이나 소송에 걸린 사항은 없었는지를 이 보고서를 통해 알게된다. 비정상적인 사항이 있을시는 각 경우마다 그렇게 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는 피치못할 사정이었으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는것이 유리하다.

집세(Rental)나 모기지를 제때에 지불했었는지를 특히 관심있게 검사하며, Late Payment가 만성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으면 용자엔 치명적이다. 자기도 모르는 건물이 신용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이 가끔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주택모기지 신용조사 보고서의 정보를 어느 회사가 언제 검사했는지도 기록되게 된다. 신용은 자본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항상 깨끗하고 정상적인 신용기록을 가지도록 조심해야 하며 용자 신청전에 자신의 신용조사 보고서를 검토해 보는것이 좋겠다.

넷째, 월수입액과 직업 및 수입의 안정성을 검사한다. 용자하는 회사는 부동산을 담보로잡고 용자를 해주고 최악의 경우는 담보를 경매에 붙여 용자했던 금액만큼을 환불받게 되지만, 가능한한 이런상황에까지 이르지않기를 원치 않는다.

월 총수입이 몇 퍼센트나 집페이먼트로 지출이 될 것이며 몇 퍼센트가 주택비용을 포함한 총 월부금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그 비율을 계산케 되는데 각 용자 회사마다 서로 다른 비율을 책정하게 된다. 전자를 Front End Ratio라고도하고 후자를 Back End Ratio라고 하는데 주된 프로그램의 비율을 예를 들면 FHA 프로그램은 월주택 비용이 총수입의 29%가 초과하면 불합격이고 총 월부 비용이 총수입의 41%가 초과하면 실격이다. 월주택비용에는 원금과 이자, 부동산세금 화재보험 및 연립식 주택은 조합비가 포함된다. VA프로그램은 Front End Ratio와 Back End Ratio가 모두 41%이며 Conventional프로그램은 각회사마다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28%에 36%이다. 이 비율내로 매월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용자회사에서 용자조건으로 어떤 부채는 전액을 용자전이나 용자금을 써서라도 상환하라는 조건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이에 이유가 있다.

용자 신청자의 수입 안정성을 볼때 보통 과거 2년간의 직장과 거주지를 검토하게 되며 다운페이 할돈의 출처도 철저히 확인케된다. 미국연방 정부법에의해 만약 마약과 관련이있는 돈이 사용되었다면 차압을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뭇돈을 만들기 위해 많이 하는 계는 미국 용자 회사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저축방법이기 때문에 이방법을 써서 다운페이할 돈을 모았다면 다른면으로 용자회사를 이해시키는것이 보통이다.

주택용자시 검사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살려고 하는부동산의 감정가격과 권원 검사에는 본인이 관여할수가 없으나 신용조사 보고서와 월수입액, 직업 및 수입의 안정성은 주로 본인이 제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용자신청자의 은행잔고는 과거 2개월간의 평균치를 사용하게 되므로 용자신청을 하기 최소한 2개월전에 CD(Certificate of Deposit)에 입금하던지 저축예금통장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 전액을 입금하면 유리하다. 직장의 경력은 과거 2년을 주시하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일단 용자 허락을 받은후 전직을 하거나 전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용자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자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서, 오운 비지네스 경영자는 스케줄 B,C,D,E,F,K-1을 첨부.
- * 오운 비지네스 경영자는 당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와 대차대조표.

- * 부수입을 증빙하는 서류(렌트/리스계약서, 차용증서, Real Estate Contract, 혼자일 경우는 이혼판결문).
- * 자녀 양육비를 받은 증빙서류.
- * 다운페이에 부모나 친척이 보조했으면 Gift Letter.
- * 과거 2년간의 지주와 고용주의 주소 및 전화번호.
- *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구좌번호, 잔고 및 은행주소.
- * 현재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채무자 이름, 채권자 주소, 구좌번호, 월페이먼트금액 및 잔고.
- * 과거 2년간의 W-2
- * 당일까지의 수입을 증빙하기위해 Pay Check
- * 영주권, 운전 면허증, 소설씨큐리티 카드.
- * 과거 2개월동안의 은행, 증권회사 기타 투자회사에서 받은 Statement.
- * 화재보험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택 용자회사에서는 용자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용자 프로그램에서 최대로 얼마나 용자를해줄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구매자의 재정능력을 판매자가 보다 신뢰할수 있도록 하는데 이 증명서를 Prequalification Certificate 라고하며 이는 무료다.

주택용자 신청자중 약 40%는 용자 불합격의 쓴잔을 마신다. 이 대부분은 과거의 신용거래가 순탄치 못했기 때문에 용자를 심사하는 회사에서 자기들도 용자해주고 똑같이 당하지나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용자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용조사 보고서(Credit Report)

신용관계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 3개회사가 가장크며 약 1억5천만명의 신용관계 정보를 관리, 보관하고 있다. 용자신청 전 자신의 신용거래 기록이 정확한지 점검해 볼것이며 이 3개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및 신용보고서를 입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Credit Northwest CBI/Equifax.
14335 N.E. 24th St.
Bellevue, WA 98007
전화: 865-0233,
수수료: 1인당 15불.

Trans Union Corp.
Box 3110
Fullerton, CA 92634
전화: 1-800-521-4019
수수료: 1인당 15불.

TRW
 19125 Northcreek Parkway, Suite 203
 Bothell, WA 98011.
 전화: 483-0522
 수수료: 1인당 16.22불.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과거 2년간의 거주지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 신청자의 현고용주 및 기혼일 경우 부부의 서명을 제공하면 본인의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이 3개회사의 활동망과 신용관계 정보 거래선이 꼭 같지를 알기 때문에 주택융자 회사에서는 보통 2개 이상의 회사기록을 합동해서 검사하는것이 예사이며 상기한 3개 회사의 정보를 사용해 실제로 주택융자회사가 사용하는 신용 보고서를 편집하는 작은 청부회사들이 미전국에 1200개나 된다. 혹 비정확한 정보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했는데도 계속 비정확한 정보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는 하기하는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것이다.

The Attorney General
 Dextor-Horton Building
 710 Second Avenue
 Seattle, WA 98104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ederal Building 2806
 915 Second Avenue
 Seattle, WA 98174

No Income Verification

최근에 이민은 사람들은 크레딧이 많이 쌓이지 않은 관계로 수입을 확인하지 않고 융자를 허가해주는 프로그램인 No Income Verification 혹은 No Documentation Program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오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세금보고액이 적은사람은 주택 판매가의 20~30%만 다운페이하면 월수입액을 별로 묻지않고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용보고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깨끗하며 현 직장 경력이 적어도 2년이상일때 이프로그램의 융자가 가능하다.

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 할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의 이자율이 현시세보다 높다던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때 재용자를 고려해 볼수있다.

Equity Loan 혹은 Second Mortgage는 이자가 재용자보다 높고 또 No Income Verification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Cash Back금액이 많을때는 재용자(Refinance)가 유리하다.

재용자는 현재의 부채를 다른 융자프로그램으로부터 융자를얻어 상환하고 새로운 채무, 채권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소유주만 바뀌지않을뿐, 새로 구입하는것과 거의 다른 없는 융자절차 및 심사를 받게 된다.

등기 보험료가 약간 저렴하며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러움이 좀 적은편이나 융자에 드는 비용은 주택을 매입 하는것이나 별다름이 없다.

예를들면 현 모기지 이자율이 12%라고 하면 \$150,000 융자액에 30년 모기지는 원금과 이자액이 월 \$1,543.50이 되는데 10%일때는 월 \$1,317.00이다. 결과적으로 2%의 이자율의 차이로 월 \$226.50을 절약한 셈이 된다. 재용자를 받는데 드는 총 비용이 융자액의 4%라고 가정하면 \$6,000불이 소요되는데 이와같은 금액을 매달 \$226.50씩 절약하므로써 27개월이 경과되어야 융자에 들어간 비용이 복구된다는 셈이다. 결국 재용자는 재용자를 받을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보면 2%의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때 2년 3개월이 경과되어야 복구가 되는셈이므로 현주택에서 2년3개월 이상, 이사를 하지않을 경우는 하루라도 속히 재용자를 받는것이 현명하다.

SUNDAY - THURSDAY
 11:00 a.m. - 10:00 p.m.
 FRIDAY - SATURDAY
 11:00 a.m. - 11:45 p.m.
 LOUNGE OPENDAILY
 11:00 a.m. - 12:00 p.m.



DIM SUM DAILY
 11:00 a.m. - 3:00 p.m.

House of Hong
 Restaurant & Cocktail Lounge

409 Eighth Ave. S. • Seattle, WA 98104 • (206) 622-7997

Mandarin Palace

Szechuan, Hunan & Mandarin Cuisine



(206) 542-5066

1630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백내장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 중 "몸이 천냥이면 눈이 팔백량이다"란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현대의학은 그 말씀을 뒷받침 해주듯이 우리 인체의 두뇌로 오가는 감각신경(Cranial Nerve Fibers)중 눈과 관계된 것이 80%를 차지한다고 증거해 줍니다.

이 시간에는 교포 어른들로부터 문의해 오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백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가능한한 전문 용어를 피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는 의학 용어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백내장(Cataract)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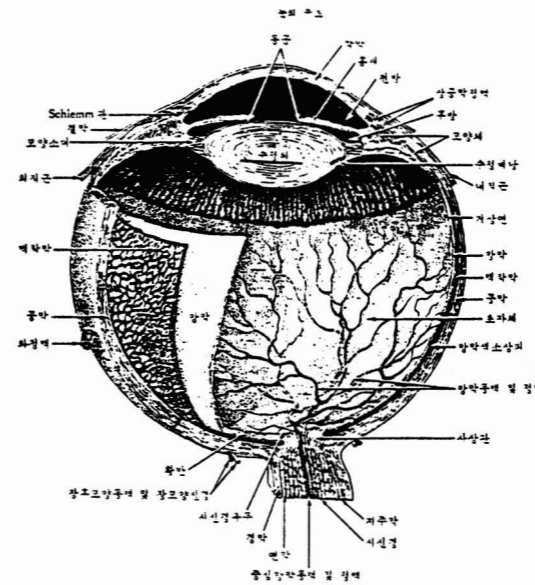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체가 홍채뒤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양면이 불룩한 돋보기 렌즈 모양의 혈관이 없는 투명한 구주로서 두께는 4mm, 직경은 9mm이며, 약 65% 수분과 35%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마치 우리가 먹는 목이나 젤로와 같이 생긴 물체입니다. 이 수정체의 기능은 각막과 함께 눈의 주된 굴절기관이며 탄력성이 있어서 모양체 근육의 수축으로 모양소대가 이완되면 좀더 통통한 둥근

민홍기

- Pacific University 안과대학
- University of Colorado
- Portland Medical Center 안과
- Vancouver V.A. Medical Center 안과
- Grace Peck Community Health Center 안과
- Washington State School of Bind 안과

모양이 되어 굴절력을 증가 시키게 되는데 이를 조절 (Accomodation)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들면서 수정체는 탄력성을 잃고 굴절력을 증가 시킬수 없게 되어 근거리 (책이나 신문들을 읽음)를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노안 (Presbyopia)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5세 전후부터 수정체는 탄력성의 소실외에도 수정체내 수분함량이 감소되고 단백질의 변화로 투명도를 상실하고 혼탁한 상태 즉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내장(Cataract)은 개략하여 선천성, 노인성, 외상성 백내장 및 전신 질환이나 안질환등에 의한 합병성 백내장으로 나눌수 있으나 이시간에는 우리 교포 노인분들에게 많이 있는 후천성 백내장의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증상

백내장이 있는 분들의 증상은 혼탁의 위치 정도및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시력이 감퇴되는데 어두운 곳보다는 주맹(Day Blindness)이 생기게 되며, 또 수정체 핵의 경화로 굴절력이 증가 되면서 눈의 굴절력이 근시 상태로되어 돋보기를 쓰던 사람이 안경없이도 근거리 글씨 등을 잘보게 되는 수정체 성 근시, 또는 제 2의 시력(Second Sight)이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수정체의 혼탁한 불순물로 인해서 빛이 들어와 반사될때 눈이 부신(Glare) 문제도 발생합니다.

3. 종류

1) 노인성 백내장(Senile Cataract)

이것은 대개 50세이후에 발생하는데 연세가 들면서 수정체 섬유 단백질의 어느 부위에 혼탁이 생기느냐에 따라 피질내장 (Cortical Cataract), 핵백내장 (Nucleat Cataract), 낭백내장 (Capsular Cataract)으로 구분하지만 이것들이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당뇨병성 백내장(Diabetic Cataract)

흔하지는 않으나 잘 치료하지 못한 연소성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백내장을 말하며 40세 이후의 환자는 당뇨병에의한 것인지 노인성 백내장인지 구별이 곤란합니다. 수정체의 혼탁은 대개



하이-큐 인쇄소 HI-Q PRINTING

한글 식자 인쇄 전문

한글 영문 명함 전문 / 한글 영문 메뉴 전문
식당 TO-GO 메뉴 전문 / FLYER, 광고도안

한글 Typing Service / 사무용 인쇄 일체
GRAPHIC DESIGN / 책 전문

Tel : (206)522-8820

Fax : (206)522-8768

4724 University Way N.E. Seattle, WA 98105



하이-큐 카피 HI-Q COPIER'S

카피 기계 수리 전문

TONER SUPPLY(최고저렴한가격)
SERVICE CONTRACT
수리 전문

중고 카피기 전문
새 카피기 취급
Specialized in Sharp

Tel : (206)522-8820

Fax : (206)522-8768

4724 University Way N.E. Seattle, WA 98105

총영사님 詩

고요

1
밤마다 우리는 고요를 가꾼다.
한밤중 우리의 어둠을 울리며 가는
인기척을
개 몇마리 별빛 몇줄기 따라갈 때면
고요는
그 많은 귀를 곤두세워 듣는다.

우리가 잠이 깊어 귀가 멀었을 때
고요는
누군가의 목메인 울음을 조금 들려주기도 한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波長의
그런 목소리로
고요는 우리의 恨을 키워준다.
때론 고요는
초생달 뜬 地平線 위에
끝없이 긴 銀빛 줄기로 빛나며 간다.

2
고요는 가끔 그 正體를
빛속에 맥박치는 리듬으로 나타낸다.
그 중심에 미지의 형상이 도사리고 있는
소리없는 이상 주위를
시간과 음악은 하염없이 돌아간다.
고요의 영역에서 우리으 한탄은 산울림이 없다.
우리의 말은 이따금 참된 목소리를 담기엔 마땅하지 않으나
고요는 언젠가 사람이 神가까이 서 있던 곳을 보여준다.
음악은 영원의 心象을 지워버리지만
고요는 우리의 天官圖에 나타난 일이 없는 곳을
白熱의 손가락으로 가리켜 준다.
그러나 고요는
들새 몇마리 보리밭에 떨어뜨리고 간 피 몇방울
한겨울 담장에 부리를 대고 죽어있는 외로운 들새의 그림자를
아직 간직 하고 있다.

* 목 차 *

* 권두언 ----	곽종세	P.4
* 격려사 ----	고창수	P.5
* 신뢰받는 민족이 되자		
-----	이점태	P.6
* 한국민족의 형제애		
-----	김병섭	P.8
* "땅끝에" 한알의 밀알이		
썩 트던 날		
-----	황동규	P.9
-----	P.50 계속	
* 미국생활과 아이덴티티;		
무엇이 문제인가?		
-----		P.11
* 생활정보		
미국내 사업활동을 위한		
법률환경 -----	로버트	
	베스커빌 변호사	
-----		P.21
은행용자를 얻으려면		P.29
주택용자 ----	김동호	P.33
백내장 -----	민흥기	P.37
한인회의 이모저모		P.40
1990년도 Seafair를 마치고		P.43
한인회 재무보고		P.44
이해를 보내면서		P.48
편집후기		P.50

야축성이며 눈송이(Snow-flake)모양이 특징이며 성숙되는 과정이 무척 빠릅니다. 당뇨병이 있는 성인에게서 이 병이 없는 경우보다 노인성 백내장이 일찍오는 경향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후 염증의 발생이 잘되고 상처의 치유기간이 늦어지며 출혈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술전에 철저한 검사및 적절한 치료하에 수술하여야 합니다.

3) 독성 백내장(Toxic Cataract)

약품등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백내장 유발 약품으로는 Ergot, Diatro[henol, Naphthalene, Phenothiazine과 Triparanol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부신 피질 호르몬제제(Coticosteroid)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후낭하 백내장(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이 초래 될수가 있습니다.

4. 치료

변성된 백내장성 수정체 단백을 약물요법등으로 원래의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것은 불가능 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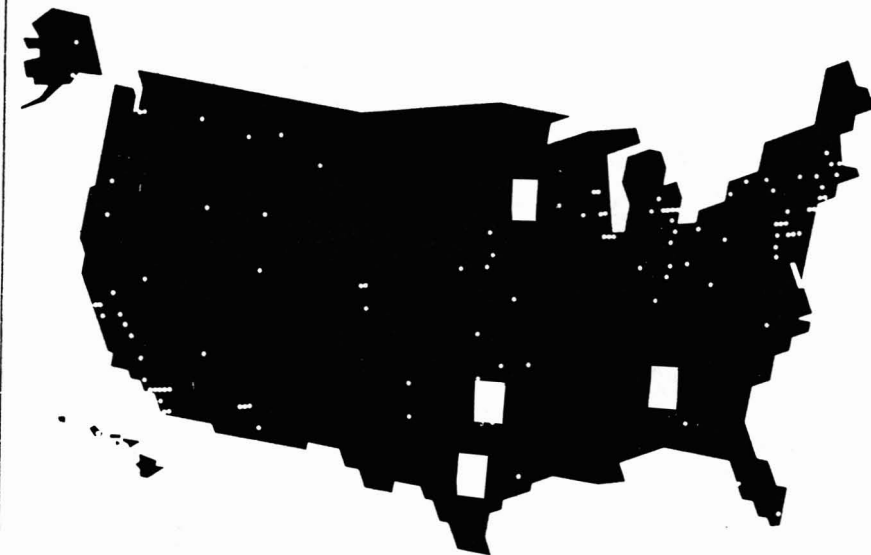
수술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의 적당한 시기는 혼탁이 진행하여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크게 줄만큼 시력이 나쁠경우나 백내장으로 인하여 속발성 녹내장 (Secondary Glaucoma)혹은 포도막염 (Uveitis)이 일어날 위태로운 기미가 보일때 수술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요즘은 수술의 방법이 고도로 발달되어 각공막운부 절개를 3mm정도로 작게 열고 수정체액을 초음파를 이용해(Phacoemulsifier) 잘게 분쇄해 흡입해 낸후 인공수정체(IntraocularLens)를 삽입한후 폐에 당일퇴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도움없이 잘 볼수 있습니다. 끝으로 질 좋은 썬글래스(Sun Glasses)는 자외선(Ultra violetRay)를 막아 줌으로 백내장 생성의 많은 원인중 하나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이미 백내장이 있는 분들에게 눈이 부시는(Glare)것을 막아주는 역할을해서 권해드립니다.

이민생활형의 앞서가는 신문

코리아저널

획기적인 무료배포 정책으로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하고
최대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코리아저널은
5개지사와 인근 지국망을
통하여 이민생활의 벗으로
명실공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THE NETWORK
of
THE KOREAN JOURNAL

씨애틀 - 타코마지사
THE KOREAN JOURNAL
-SEATAC EDITION
33310 Pacific Hwy S.
Building 4, Suite 401
Federal Way, WA 98003
Phone 씨애틀:661-1767
Phone 타코마:952-3961
Fax(206)661-1813

로스앤젤레스사무소
THE KOREAN JOURNAL
-L.A.OFFICE
2500 W.8th St. #204-A
Los Angeles, CA 90057
Phone(213)380-7507
Fax(213)380-7534

시카고지사
THE KOREAN JOURNAL
-CHICAGO EDITION
4118 W. Lawrence #1
Chicago, IL 60630
Phone(312)545-3730
Fax (312)545-3729

아틀란타지사
THE KOREAN JOURNAL
-ATLANTA EDITION
5455 Buford Hwy. #207-A
Atlanta, GA 30340
Phone(404)451-6946
Fax(404)451-6955

휴스턴지사
THE KOREAN JOURNAL
-HOUSTON EDITION
1241 Blalock
Houston, Tx 77055
Phone(713)467-4266
Fax (713)467-2657

달라스지사
THE KOREAN JOURNAL
-DALLAS EDITION
2828 Forest Ln. #1137
Dallas, Tx 75234
Phone(214)241-7907
Fax(214)241-7909

현명한 사업가가 선택하는 최고의 광고매체

특별 개원세일
15% OFF(년말까지)



민흥기안과 부속

디자인 안경원

본 안경원에서는 여러분의 얼굴과 취향에 맞는 세계 각국의 안경들을 골고루 갖추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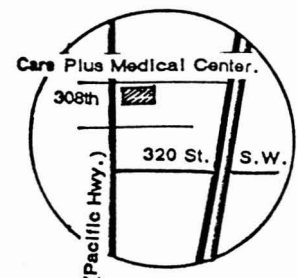
- 디자이너 Brand를 찾으십니까?
- 큰 Size의 안경을 원하십니까?
- 고급 Sunglass
- 경제적인 안경
- 얇고 가벼운 안경알을 원하십니까?

65세 이상 어른들께 특별봉사

☎ 전화 : (206)941-7074(Federal Way)
1-800-439-3711(무료 장거리 전화)

☑ 주소 : 30806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안경에 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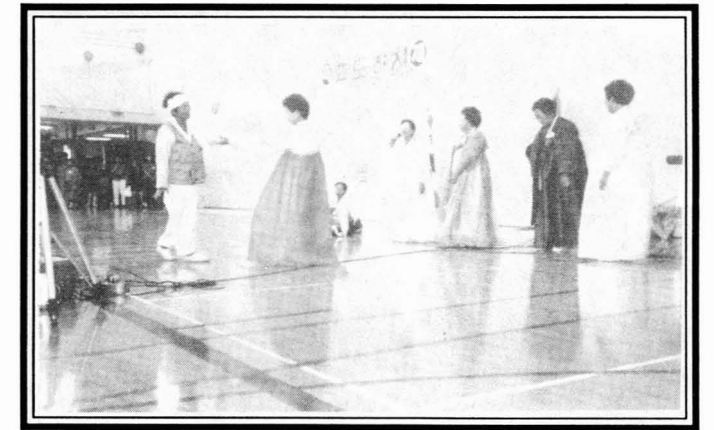
한인회의 이모저모



5-23-90 수요일 오전 9시 45분 부주지사 방문



7-20-90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King County 군수방문
좌로부터 김동호(기획부장) 정운제(회장직무대리) Jim Yearoy(노동문제담당부장)
Jesus Sanchez(소수민족문제담당부장) Tim Hill(King County 군수)
곽종세(이사장) 이점태(부이사장)



한인회 회장, 임원 '90



명예회장	장동식	이 점 태
회 장	곽종세	백인홍
부 회 장	김동호	이광술
사무총장	이승우	곽종세, 김동호
재무부장	김석민	한원섭, 강석동
기획부장	김동호	강희열, 김홍열
섭외부장	박태호	권오문, 김광석
홍보부장	김인국	김무영, 김석성
법률부장	송세현	박노진, 김재원
편집부장	홍경림	안승적, 오춘석
사회복지부장	맹상명	유창열, 서병권
경로부장	이지선	유하성, 유흥근
봉사부장	우계영	윤부원, 윤상인
부녀부장	우경재	이상수, 이종찬
청년,학생부장	어명하	이종환, 장정형
문화부장	김경자	조요한, 함재명
고 문	김병섭	허남일, 홍종우
자문위원	구범희 조성옥	(무순)
	김정부 한만섭	김형달, 고봉식
	오계희 (무순위)	윤광남, 이동립
감사	이석주	최주찬 (무순)
		자문이사





느림한 기수들



화려한 농악대



1990년도 SEAFAIR를 마치고.

기획부장
김동호

1990년 Seafair는 8월 3일(금), 8:30p~11:00p, 예년과 같이 시애틀 센터로 부터 킹덤까지 2.5마일의 거리를 4가를 통하여 행진하였었다. 마침 Goodwill Game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중반전과 개최일자가 중복이 되어 TV로 많은 시청객들에게 중계될것을 예상, 준비에 특별한 배려를 했었다.

우선 출연주제를 한국고전무용 및 농악과 태권도를 주제로 선택, 범 교민단체로 구성하는 혼성팀을 구성키로했다. 특히 농악팀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영사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로스 안젤레스에있는 한국음악 무용예술단(김동석 단장) 으로부터 1명의 12발 상모와 2명의 설장고가 참여 시애틀과 타코마에 있는 농악팀과 합류했었다. 팀은 3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했었다.

제1팀 한인회 임원과 Univ. of Washington 학생 및 대한 체육회 임원으로 구성된 기수팀.

제2팀 한국고전무용과 농악팀으로 하기하는 단체가 참가했었다. 서북미 한국고전무용단(안경숙 단장), 셋별 무용단(최지연 단장), 타코마 노인회 농악대, 신우회, 한국음악무용예술단(김동석 단장).

제3팀 태권도팀 Back's Black Belt Academy. 8개의 단체로 부터 120명이 참가해 혼성팀을 구성했었으며 더우기 타코마로부터 4개 단체가 참가케되어, 이를 준비하는 중에는 수많은 장거리 전화를 해야 했었으며 타코마를 세번이나 가 참가단체

책임자들과 상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금년 Seafair에는 다행이도 전 Seafair 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 한인회 회장인 한원섭씨와 당시 한인회 이사장 곽종세씨, 그리고 운학덕태권도 사범계서 선두 지휘하여 마음이 든든했었다. 이와 같은 큰 행사를 다수의 단체가 혼성팀으로 시도해 본것은 그 의도는 좋았었으나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이 연락을 하는데 소요되었었다.

타교민회에서는 한인회같은 기관에서 Seafair를 준비치 안코, 매년 같은 임원진과 안정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로 상공회의소등)에서 Seafair를 매년 후원하여 출연토록 한다고한다. 매년 임원이 바뀌는 한인회, 특히 그 구성 이사진이 늘 바뀌는 한인회에서 Seafair를 맡을것이 아니고 내년 부터는 보다 더 동질성이 있는 다른 한인기관에서 Seafair를 담당(후원)하면, 매년 전년도와 경험을 토대로 보다 더 좋은 출연을 할수있을것이다. 한국고전무용과 농악대 및 태권도의 Seafair출연은 매년 계속될것이 예측되므로 어느 고전무용단과 농악대 그리고 태권도 학교가 오는 Seafair에 출연할 것인지를 알면 준비하는데 좋겠다.

1990년도 Seafair에는 전한인회 부회장 김창작씨의 책임하에 진행되었으며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다.

끝.

<p>青島食堂</p> <p>TSING TAO MANDARIN RESTAURANT Authentic Northern Chinese Food</p> <p>13744 Aurora N. Seattle, WA 98133 Tel: 367-3339</p> <p>Sunday 1 p.m. - 10 p.m. Monday Closed Tue - Thurs 12:00 - 10:00 p.m. Fri - Sat 12:00 - 11:00 p.m.</p> <p>PHONES 623-1670 623-1671</p>	<p><i>Pacific Rose House</i></p> <p>WEDDINGS HOSPITALS FUNERALS FLOWERS & GIFTS</p> <p>(206)584-1995</p> <p>9313 So. Tacoma Way Tacoma, WA 98499</p>	<p>LUKE'S PHARMACY</p> <p>PRESCRIPTIONS • FREE DELIVERY</p> <p>PHONE 621-8883 CLOSED SUNDAY</p> <p>611 MAYNARD ST. SEATTLE, WA 98104</p>
<p>酒新 家雅</p> <p>SUN YA RESTAURA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ial Chinese Luncheon Pastries • Authentic Cantonese Cuisine • Banquet Room Available • Orders to take Out • COCKTAILS <p>605 - 7th AVE. SOUTH SEATTLE, WA 98104</p> <p>SUN LEW</p>	<p>이제 그리고 헤어의 완성</p> <p>JUNOLEE</p> <p>그 강렬한 개성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Care • Cuts • Styles • Color • Perms <p>546-0100</p> <p>10000 Aurora Ave N. Seattle, WA</p>	<p><i>Le HaMa Jewelry, Inc.</i></p> <p>美華珠寶公司</p> <p>BUSINESS HOTEL 400 MAYNARD AVE SO SUITE 109 SEATTLE, WA 98104</p> <p>FRANKS, MA (206) 522-0443</p>

1990년도 재무보고

재무부장 김석민

수입			
1. 공탁금	\$10,000	2. 이사분담금	\$10,200
3. 한인회비	\$2,770	4. 광고비	\$1,300
5. 시폐어 기부금	\$3,450	6. 경로잔치 기부금	\$8,250
7. 이월금	\$713.08	8. 기부금	\$7,840
9. 기타	\$11,510.21		
계 \$46,033.29			

지출 (일반 경상비)			
1. 사무실 불입금	\$2,800	2. 사무원 봉급	\$5,600
3. 우표 구입비	\$575	4. 전화 사용료	\$653.00
5. 소모품비	\$245.16		
6. 사무용품비(인쇄비 포함)	\$1,425.33		
7. 화환및 선물비	\$393.	8. 신문 구독료	\$175.00
9. 회의비용	\$480.99	10. 상장및 감사패	\$125.81
11. 종합안내광고	\$870.00	12. 광종세	\$872.95
14. 기타지출	\$936.33		
계 \$17,253.02			

지출 (행사비)	
1. 신구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1,584.13
2. 입양아단체 자선금	\$600.00
3. 건강강담및 무료진료	\$590.53
4. 체육행사 지원	\$1,500.00
5. 한인학생회 지원	\$607.75
6. 한인학교 지원	\$1,600.00
7. 경로비	\$1,600.00
8. 근월계입 지원	\$1,000.00
9. 시폐어 퍼레이드	\$7,284.10
10. 노스웨스트 폭 페스티벌	\$300.00
11. 경로잔치	\$4,486.67 *
12. 청소년 프로그램	\$1,021.56 *
13. 아리랑의 밤	\$200.00 *
14. 광복절 기념식	\$256.62
계 \$22,631.36	
* 현재 지출중	

1990년 10월 30일 현재

* 총수입 \$46,033.29
* 총지출 \$39,884.33

한인회비 납부자			
1. 강명구	\$10.00	2. 강희열	\$10.00
3. 광상영	\$20.00	4. 광종세	\$100.00
5. 권성오	\$15.00	6. 권옥희	\$20.00
7. 김간난	\$100.00	8. 김광민	\$20.00
9. 김광석	\$10.00	10. 김기남	\$20.00
11. 김덕신	\$10.00	12. 김동조	\$20.00
13. 김동호	\$20.00	14. 김명재	\$20.00
15. 김부응	\$20.00	16. 김문중	\$50.00
17. 김병섭	\$20.00	18. 김석민	\$20.00
19. 김영수	\$50.00	20. 김영자	\$20.00
21. 김영조	\$20.00	22. 김용화	\$10.00
23. 김원근	\$20.00	24. 김인국	\$20.00
25. 김정부	\$20.00	26. 김정희	\$50.00
27. 김종구	\$20.00	28. 김종택	\$20.00
29. 김청작	\$100.00	30. 김현길	\$20.00
31. 김형중	\$10.00	32. 노순열	\$50.00
33. 류재관	\$10.00	34. 맹병규	\$30.00
35. 민세일	\$10.00	36. 박봉식	\$20.00
37. 박선비	\$20.00	38. 박윤철	\$20.00
39. 박태호	\$50.00	40. 박호철	\$30.00
41. 배운덕	\$20.00	42. 백웅기	\$30.00
43. 백인홍	\$20.00	44. 변인철	\$20.00
45. 변종혜	\$20.00	46. 손세현	\$10.00
47. 신광수	\$5.00	48. 신옥림	\$20.00
49. 심상희	\$30.00	50. 심승빈	\$10.00
51. 안도균	\$20.00	52. 안분예	\$20.00
53. 안인배	\$10.00	54. 안재팔	\$20.00
55. 어명하	\$20.00	56. 염왕균	\$20.00
57. 오버나잇프린팅	\$30.00	58. 오춘석	\$20.00
59. 우경재	\$20.00	60. 우계영	\$20.00
61. 유매운	\$20.00	62. 유흥근	\$10.00
63. 윤병설	\$100.00	64. 이경병	\$20.00
65. 이광술	\$10.00	66. 이기락	\$50.00
67. 이대식	\$30.00		

68. 이덕재	\$10.00	69. 이동립	\$100.00
70. 이상훈	\$40.00	71. 이성구	\$20.00
72. 이승우	\$20.00	73. 이우성	\$10.00
74. 이종길	\$20.00	75. 이종찬	\$20.00
76. 이지선	\$10.00	77. 한국남	\$10.00
78. 이진향	\$20.00	79. 이희고	\$20.00
80. 이희덕	\$20.00	81. 임종일	\$10.00
82. 장낙중	\$50.00	83. 장인주	\$20.00
84. 장진자	\$10.00	85. 정문식	\$20.00
86. 정문언	\$10.00	87. 정운영	\$10.00
88. 정운제	\$20.00	89. 정자만로	\$20.00
90. 조경희	\$20.00	91. 조병우	\$150.00
92. 조성교	\$20.00	93. 조요한	\$10.00
94. 조원일	\$20.00	95. 조재균	\$20.00
96. 조재환	\$20.00	97. 조정남	\$10.00
98. 최경수	\$20.00	99. 최수임	\$10.00
100. 최승환	\$20.00	101. 한국남	\$10.00
102. 한만섭	\$100.00	103. 한상국	\$20.00
104. 한원섭	\$20.00	105. 함재명	\$10.00
106. 허성만	\$20.00	107. 홍경림	\$20.00
108. 황동규	\$20.00		

이사분담금 납부자			
1. 강희열	\$200.00	2. 고봉식	\$200.00
3. 광종세	\$1000.00	4. 구범희	\$500.00
5. 권오문	\$400.00	6. 김광석	\$500.00
7. 김형달	\$500.00	8. 안송적	\$500.00
9. 오춘석	\$500.00	10. 윤광남	\$500.00
11. 윤부원	\$250.00	12. 윤상인	\$400.00
13. 이광술	\$500.00	14. 이동립	\$500.00
15. 이점태	\$1000.00	16. 이종찬	\$250.00
17. 정운제	\$500.00	18. 정정형	\$500.00
19. 조요한	\$500.00	20. 최주찬	\$500.00
21. 한원섭	\$500.00	22. 함재명	\$300.00

시폐어 퍼레이드 기부자			
1. 총영사관	\$1,500.00	2. 광종세	\$300.00
3. 이동립	\$300.00	4. 장욱	\$200.00
5. 지사상사협의회	\$200.00	6. 고광선	\$100.00
7. 고흥근	\$100.00	8. 김동호	\$100.00
9. 양계연	\$100.00	10. 조요한	\$100.00
11. 탕고식당	\$100.00	12. 심재환	\$50.00
13. 엄도승	\$50.00	14. 예정현	\$50.00
15. 이대동문회	\$50.00	16. 이정언	\$50.00
17. 정정이	\$50.00	18. 한영일	\$50.00

추석 경로잔치 후원자			
1. 총영사관	\$1,000.00		
2. 김성원 (Everett Iron&Metal Co.)	\$1,000.00		
3. 조성욱	\$300.00	4. 평통 씨애틀 지회	\$300.00
5. 김수영 부동산 (김수영)	\$200.00		
6. 김용철 박성수 회계사	\$200.00		
7. 김형달	\$200.00	8. 로명재	\$200.00
9. 박재인 (Broadmoor Plumbing & Heating, Inc.)	\$200.00		
10. 백천 (민세일)	\$200.00		
11. 오용남	\$200.00	12. 이동립 (KCC)	\$200.00
13. 이점태	\$200.00		
14. (주) 거성산업 (김기영)	\$200.00		
15. 한국 외환은행 (이길우)	\$200.00		
16. 온상용 (Onset Jewelry)	\$150.00		
17. 이규만 (초원의집 식당)	\$150.00		
18. 강병철 (Michi's Tempura & Teriyaki)	\$100.00		
19. 강석동	\$100.00	20. 구만희	\$100.00
21. 권오문	\$100.00	22. 김린다	\$100.00
23. 김영수	\$100.00	24. 김정부	\$100.00
25. 김정희 (Univ. Village Florist)	\$100.00		
26. 김창화 (Elmer's Auto Body)	\$100.00		
27. 대한여행사 (김홍열)	\$100.00		
28. 민학균	\$100.00	29. 박설봉	\$100.00
30. 박영민	\$100.00	31. 백기완	\$100.00
32. 변종혜	\$100.00		
33. 서이석 (Estern Service Co.)	\$100.00		
34. 선트로피 (안선균)	\$100.00		
35. 송상철 (Golden Master)	\$100.00		
36. 신석관	\$100.00		
37. 안성호 (Passport Travel)	\$100.00		
38. 유재하	\$100.00	39. 윤부원	\$100.00
40. 전용원	\$100.00		
41. 최정식 (King Center, Inc.)	\$100.00		
42. 홍인표	\$100.00	43. 황동규	\$100.00
44. 궁경정	\$50.00	45. 권영철	\$50.00
46. 김인하	\$50.00	47. 김종구	\$50.00
48. 문희중 (John's Auto Repair)	\$50.00		
49. 박우석	\$50.00	50. 박태호	\$50.00
51. 샤나 미용실	\$50.00		
52. 서울 테리야끼	\$50.00		
53. 이지선	\$50.00		
54. 회래등 (안재팔)	\$50.00		
55. 대한항공 한국 왕복 항공권 1매			
56. 강정숙 (오! 벤틀) 도시락 50인분			
57. 광종세 (시애틀 한인회장) 남자용 손목시계 1개			

- 58. 김동호 상품 1점
- 59. 김동화 (롯데 백화점) 고급 화장품 2셋
- 60. 박정하 (참피온 양복점) 노인 신사복지 (200불 상당) 2벌
- 61. 새로나 식품 쌀 80파운드 1포대
- 62. 서울 한의원 (이낙준) 보약 최고급 1제
- 63. 선희 미용실 무료 파마권 3매
- 64. 신광수 ((주) 한미식품) 쌀 25파운드 20포대
- 65. 엄한조 (그로서리협회장) 음료수 50상자
- 66. 오준문 (오로라 선물센타) 전기밥솥 2개
- 67. 오춘석 (한일각) 도시락 100인분
- 68. 워싱턴주 한인 체육회 1대
- 69. 윤상인 (상공회의소 회장) 19인치 칼라 TV1대
- 70. 이정언 전기제품 1대
- 71. 이종길 (오리엔탈 바베큐) 도시락 50인분
- 72. 이종남 (아카사카) 도시락 50인분
- 73. 최경남 (북경한의원) 보약 5인분
- 74. 하윤희 미용실 무료 파마권 3매
- 75. 한상국 목사 상품 1점

경로잔치에 도움을 주신분

에버그린 합창단 한인회 부설 한인학교 어린이들
 한인장로교회 선교단 엘림장로교회 UW한인학생회
 광종세 김동호 이승우 박태호 김인국 김석민
 흥경림 김경자 이지선 우계영 우경재 어명하
 맹상명 오계희 이점태 유흥근 한원섭
 은혜교회 최용주목사님 부인 박매호씨 부인
 한원섭씨 부인 이승우씨 부인 한영희 곽인숙
 티나김 제이리 생김 타까에김 김석성 윤상인
 (이상무순)

* 광고를 내주신분

- 1. HI-Q Printing \$800.00
- 2. AT & T \$400.00
- 3. Lee's Auto Sales \$300.00
- 4. 민흥기 안과 \$300.00
- 5. Kevin Jung, Attorney \$150.00
- 6. Kiyoko Hall Realty \$150.00
- 7. Security Pacific Bank WA \$150.00
- 8. United Savings and Loan Bank \$150.00
- 9. Uwajimaya \$150.00
- 10. O'Commor, Attormey \$80.00
- 11. Bush Garden Restaurant \$50.00
- 12. Pacific Rose House \$50.00
- 13. 경도식당 \$20.00
- 14. 그랜드 식품 \$20.00

- 15. 주노리 미용실 \$20.00
- 16. 청도식당 \$20.00
- 17. Hong Kong Golden City Restaurant \$20.00
- 18. House Of Hong Restaurant \$20.00
- 19. International Products \$20.00
- 20. Kim & Park, CPA \$20.00
- 21. Le Hama Jewelry, Inc. \$20.00
- 22. Luke's Pharmacy \$20.00
- 23. Sun Ya Restaurant \$20.00

그외 기부금

- 1. 신입회장단 기부금 \$5,000.00
- 2. 찰스 허만 변호사 \$1,500.00
- 3. 총영사관 \$1,000.00
- 4. 박재성 \$200.00
- 5. 한인회관 결혼 1호 부부 \$140.00

워싱턴주 한국 식품협회

그랜드 식품

(Grand Food)
 15202 Aurora N.
 Seattle, WA 98133
 전화 : (206) 365-1500
 대표 : 김 용 현

남대문 식품

(South Gate Oriental Grocery)
 3900 128th Ave. S.E.
 Bellevue, WA 98006
 전화 : (206) 361-7094
 대표 : 김 구

동산 마켓

(Tongsan Market)
 15033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 (206) 361-7094
 대표 : 이 의 성

리스 야채

(Lee's Produce)
 9435 Delridge Way S.W.
 Seattle, WA 98106
 전화 : (206) 762-5220
 대표 : 장 재 휘

새로나 식품

(Sae Ro Na)
 31260 Pacific Hwy S. #12
 Federal Way, WA 98003
 전화 : (206) 839-6255
 대표 : 이 재 명

장미 상회

(Rose Oriental Store)
 1414 S. 324th St. #201
 Federal Way, WA 98003
 전화 : (206) 941-8144
 대표 : 김 흥 재

중앙 식품

(Center Oriental Food)
 9641 15th Ave. S.W.
 Seattle, WA 98106
 전화 : (206) 762-5620
 대표 : 송 태 호

제일 식품

(The First Oriental Grocery Store)
 21405 Hwy 99 #A
 Lynnwood, WA 98036
 전화 : (206) 774-4103
 대표 : 조 성 교

켄트 상회

(Kent Oriental Imports)
 23633 104th Ave. S.E.
 Kent, WA 98031
 전화 : (206) 852-8388
 대표 : 임 증 현

한남 식품

(Han Nam Oriental Market)
 33320 Pacific Hwy S. #103
 Federal Way, WA 98003
 전화 : (206) 874-5665
 대표 : 송 명 수

한아름 식품

(Han A Rum Oriental Grocery)
 10261 16th Ave. S.W.
 Seattle, WA 98146
 전화 : (206) 839-6255
 대표 : 장 창 호

한일 식품

(Han Il Oriental Grocery)
 17711 Hwy 99
 Lynnwood, WA 98087
 전화 : (206) 742-2011
 대표 : 정 은 영

이해를 보내면서

1990년을 보내면서 우리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년을 뒤돌아 보고저 한다.
- 부회장 겸 기획부장 김동호 -

1990년은 장동식 회장의 뒤늦은(4월) 취임과 취임 1개월후 병석에 눕게 되시는 와중에 정운제, 김청작 두 부회장의 사임으로 광중세 현회장이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단 한번도 성원을 이루지 못한 이사회,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 한인회의 체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확신끝에 회칙개정을 추진했었고 회칙의 기초작업을 완전히 완성 했었음에도 교민간의 인화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회칙개정은 일단 보류기로 했다.

한인회의 목적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시행사업들은,
"가)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사회적으로 상호 협조 하고 나아가 한미간의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에 기여 하는 일.

나) 한국의 경제 사회문화를 이해 증진시키고 홍보 하는 일.

다) 교육과 자선 구제에 관한 일.

라) 기타 한인 사회에 유익한 일" 이라고 시해를 위 신통주 한인회칙 제 3조에 명시되어 있다.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교민들의 수와 또 여러 교민 단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한인회가 되자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겠다.

첫째, 강력한 이사진의 구성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이사진은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를 망라한 대표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 꼭 필요 한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라야 이상적이겠다.

둘째, 한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인회에 대한 주인 인식을 고취키 위하여 상임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며, 이 상임 이사회원들의 지속적이고 능률적인 Decision Making Process를 확립하자면 더 많은 뜻있는 인사들이 한인회에 참여토록 해야겠다.

셋째, 한인 커뮤니티의 여러행사를 간소화하고 행사의 중복을 피할것이며, 공동주최 내지 협찬등으로 여러단체와 횡적으로 연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출연을 대외

적으로 해야하는 행사들은 경비절약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인회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매년준비, 출연토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 겠다. 예를 들어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있는 Seafair Parade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기타 행사도 산하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매년 해 나가고 있다. 매년 있을 추석 경로잔치는 Grocery 협회에서 한다든가 Folklife Festival은 셋별 무용단 혹은 서북미 한국무용단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출연함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인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 문제이다. 시해를 한인회가 창설된지 23년이나 되어 이미 한 세대 (Generation)가 바뀌었다. 현 한인회가 명실 상부한 활동을 펴나가자면 범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인회 사업기금이 모아져야 된다. 한 두사람의 후원회비나 공탁기금으로 운영되여도 안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영되여 질수도 없는 것이다.

시에를 한인회가 증가 일로에 있는 교민들에게 비전 (Vision)을 보여주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희망과, Main Stream에 뒹뒹이 참여할 수 있는 조약의 발판이 되자면 오늘의 시점에서 이른바 총체적인 Leadership이 있어,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이 불가능 할때는 미국내 대도시의 한인회와 같이 [없는 것이 좋은] 한인회로 발전할 것이 명약 관화 하다고 봄이 좋겠다. 한인들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단결하여 목적과 방향을 설정 의도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를 잃은 민족과 같이 되겠고 제 2세들에게 설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후회하지 않는 장래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GRAND OPENING LEE'S AUTO BODY & PAINT

“최저의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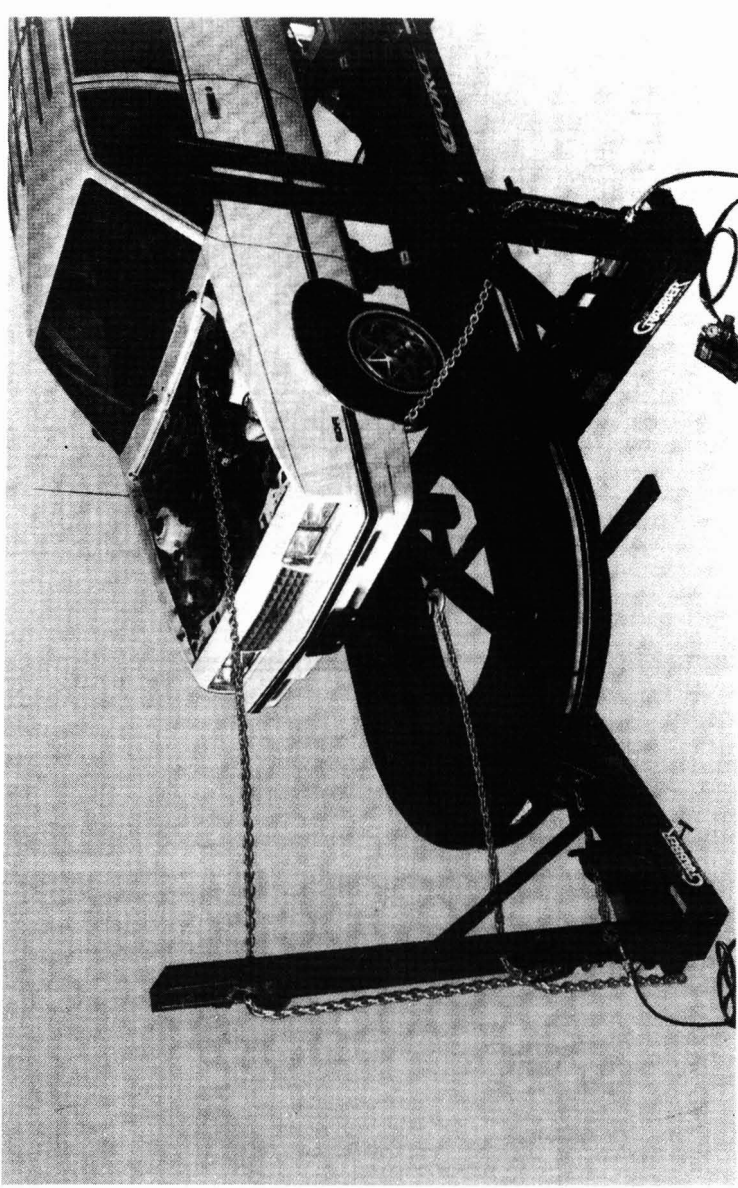
완벽한 씨스템도입 !!

BUSINESS HOUR · 월~금 8AM-6PM
토 9AM-1PM

최신후 레임기계
유니바디스페셜
보험업무대행
토잉서비스
건설무료

13281 Aurora N.
Seattle, WA 98133
(206)368-6847
(206)368-6848

* 자동차사고즉시 연락하시면 무료도입과
보험 업무일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40여년만에 복음의 동토인 북녘땅에 선포되는 엄숙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설교에는 정치나 체제의 얘기도 없고 주체사상의 논리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순수한 복음주의적 설교였습니다. 어느 특정된 사람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의식구조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라는 영적 메시지가 북녘하늘 아래서 선포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래 감사란 깨달음과 겸손과 믿음에서 오는 것으로 감사의 차원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먹을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물리적인 감사이고, 둘째는 가난하다가 부해진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이 있게된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인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제일 행복한자임을 깨닫게되는 철학적 감사이며, 셋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죄를 속양하심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로 모두가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적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신학적 감사는 인간내면에서 우러 나오는 감사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위에있는 감사임으로 여기에는 기쁨이있고 소망이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인 일반적 감사나 철학적인 감사에만 머물렀던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행복한 삶은 단지 물질의 충족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속에서 얻게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내면의 깊은곳, 즉 영혼의 충족에서 이루어 진다고하는 4차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첫번째 맞이하는 감사절에 북한동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도 같은 중한 사명을 받아 기독교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북한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박춘근 목사님과 그리고 주님의 예정된 섭리에 따라 이모저모의 형편과 모양으로 교회에 인도되어 북한의 초대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은 온 봉수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렸던 성령이 임하시 모두가 권능을 받아 "땅끝에 이르는" 북한의 복음화의 역군으로 충성하게 됨으로 옥토에 떨어진 한알의 밀알이 썩어 장차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교인과 교회위에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990년 11월 감사절에

편집후기

한인회에 관여하기 전에는 그저 무관심한 교포의 한 사람으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한인회를 평가했었다. 직접 한인회일을 하면서 감동 받은 것은,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아직 우리 한국사람에게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투자할 가치와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일깨우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다. 변호사 로버트 베스커빌씨도 기고 한바와 같이, 미국이란 사회는 비즈니스 법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거대한 경기장과 같다.

* Rule(규칙)을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성의와, * 효율적인 Team Work(단체 행동)을 위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

* Star Player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고, 희생하고 후원하는 아량 없이는 결코 이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다시 느낀다.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해서 자라나는 2세의 장래를 위해서, 나아가 미국이라는 사회의 건설적인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교민의 참여와 후원이 한인회에 절실하다. 적게 크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인회와 한인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 선배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김동호 부회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지면의 부족으로 실어드리지 못한 여러 기고자님들의 글은 다음글에 실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양해를 드린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씨애들의 가을날에
홍경림

GRAND TRADING INC.
그랜드식품

Yong Hyun Kim
김용현

비디오 대여 · 고려당분점
15202 AURORA N. SEATTLE, WA 98133 (206) 365-1500

BUSH GARDEN

AUTHENTIC JAPANESE RESTAURANT



Sushi - Robata - Karaoke
Private Japanese Rooms

LUNCH & DINNER

"FOR RESERVATIONS CALL"
BUSH GARDEN SUKIYAKI
614 Maynard S ----- 682-6830

Taiwan • Korea • Norway • Mexico • Austria • Greece • Canada • Guam • Israel • Malaysia • Australia • Hong Kong • Philippines • Panama • Pakistan • Uruguay • Thailand • Belgium • Monaco • Faeroe Islands • San Marino • Finland • Denmark • Belgium • Brazil • France • Canada • Japan • South Africa • Luxembourg • San Marino • Vatican • India • Kuwait • Singapore • Peru • Argentina • Chile • Colombia • Ecuador • El Salvador • Guatemala • Honduras • Nicaragua • Panama • Paraguay • Uruguay • Venezuela • Mexico • Sweden • New Zealand • Portugal • Liechtenstein • United Kingdom • Bahamas



**단지 83센트로 한국에
돌아가 보십시오.**

AT&T Reach Out® World Plan 으로 보다 자주 통화 하시고, 그 비용을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목소리! **Reach Out World Plan** 을 통하여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한국까지 일본에 단83센트** 입니다.

이 국제통화 프로그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 24시간, 편리한 시간중에 막대한 통화료를 절약해 드립니다.

Reach Out World 는 보다 저렴한 분당 통화요금으로 여러분의 월 국제통화료를 절약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통화 하실수록 분당요금 이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첫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나머지 통화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의 할인혜택을 누리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Reach Out World 는 여러분께 한국 이외에도 다른 많은 지역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40여개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절약과 함께 세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직접 다이얼을 돌리시면 타주와의 장거리전화 비용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AT&T** 만이 이와같은 비용절약과 편리한 통화시간 및 많은 나라들을 함께 한달에 단 3달러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3달러의 수수료로 여러분은 분당 통화 요금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보다 더 그리운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AT&T Reach Out World Plan 에 가입하시면 바로 그 음성을, 여러분이 저희 **AT&T** 로 부터 당연히 기대 하시는 선명한 연결과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통해 그 어느때 보다 더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곧 이 쿠폰을 발송 하시거나 다음의 무료 장거리전화를 이용해서서 **AT&T** 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을 고국에 보내 드리게 해주십시오.



AT&T Reach Out® World Plan 을 통해
한국과 통화하시고 그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그리고 40여개의 국가 및 지역의 통화료도 절약하십시오.
1 800 338-8097로 전화해서서 한국어 하는 서희 직원과 말씀 하시든지 또는:

네, **AT&T Reach Out World Plan**에 저를 가입시켜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안내 설명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번호 () _____
서명 _____

이 쿠폰을 다음 주소로 발송해 주십시오. **AT&T Reach Out World Plan**
PO. Box 577
Roseland, NJ 07068-9806
8254

1-800-338-8097

• 절약은 AT&T 국제장거리 통화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임.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Reach Out World**와 국제 장거리통화 표준요금의 비교를 위해 AT&T로 전화 하십시오.
• 가아나의 경우만은 13시간, 영어하는 직원과 말씀하시려면 무료 장거리전화 1 800 882-6392로 전화 하십시오.



공립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학교

본교는 교과정 전반을 확장, 강화 하여 공립학교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책임 교육을 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교과정 확장, 강화 내용

가. 정규교과정(REGULAR CURRICULA)에 있어서

- (1) 특수예능 문화과목첨가와 특기교육
 - 첨가특기과목 : 글짓기반, 무용반, 미술반, 웅변반, 태권도반, 합창단
 - 전문가에 의한 개인및 그룹지도
 - 경시대회및 모국행사에 참여, 발표하게 함
- (2) 수학과목 첨가와 개별지도
 - 초등학교 수학과 : 빠른 계산능력 치중
 - 중·고등학교 수학과 : SAT 준비지도 치중
- (3) 민족교육(한국어와 일반 한국문화) 계속 강화
 - 민족교육의 계속강화

시간표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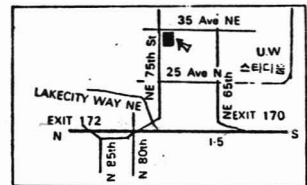
오전 9시30분 - 오전10시50분 한국어
 오전10시55분 - 오전11시25분 일반문화과목
 오전11시45분 - 오후12시45분 특수예능 문화과목
 오후12시50분 - 오후 1시40분 수학

나. 특수활동교과정 (EXTRA CURRICULA ACTIVITIES)에 있어서

- (1) 여름캠프 : 일주일간의 야영프로그램
- (2) 여름모국방문 : 2주간일정의 방문프로그램
 - 첫째주 : 자매결연학교 수업참여
 - 둘째주 : 모국 산업지 견학과 명승고적답사
- (3) 고적대운영
 - 각종악기 개인및 그룹지도
 - 각종 내외행사참여및 발표
- (4) 유학생자녀반
 - 필요성에 따라 수준올린 한국어학습
- (5) SPELLING BEE
 - 일반학과에서의 성공을 시도한 프로그램
- (6) 기타 · 견학 · 운동회 · 학예회 · 품행방정자표창 · 양자자녀반 프로그램

본교 주소와 약도

c/o ECKSTEIN MIDDLE SCHOOL
 3003 NE 75th St
 Seattle WA 98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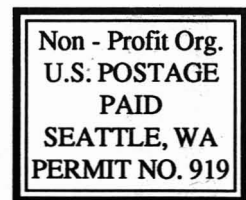
등록절차

한인회 사무실(767-8071) 오전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전화등록이나 신청서를 우송받으실 수 있음

연락처

한인회 (767-8071) 오전9시-오후3시사이*
 (365-4128) (546-9104)

시애틀 - 워싱턴 한인회
 SEATTLE WA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 Angelo St.
 Seattle, WA 98108





<변모하는 한인 교포사회와 한인회>

- 회장 곽종세 -

우리 교포사회의 확대와 아울러 한인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교포수의 점증적인 증가와 더불어 우리 관심분야의 증대는 그 특이성이나 복잡성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소양을 요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것 같습니다.

1990년도 (후반기)의 한인회를 맡은 본인은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한인회가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한인회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한인 교포사회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순히 교포인구의 팽창에서오는 한인사회내의 문제분야 확대만이 아니라 이들 제분야에서 교포 사회가 외부와 맺는 관계에서 오는 여러문제와 관심사를 동시에 보지않으면 않된다는 점에서, 한인회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포사회가 많은 사업체를 미국사회에 형성하여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종 사업분야는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발전과 성공을 보이면서도 적지않은 고역을 겪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사회가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사회로서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여러협회 활동은 이를 단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포사회의 사업활동이 성공리에 이끌어져 갈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경제 체제내의 극도의 경쟁적인면은 가정문제를 등한케 하는 피치못할 결과를 가져왔으며 우리 교포들도 예외일수 없는 파문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이같은 파문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선도를 등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우리 자녀 교육의 심각성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와 인종간의 갈등등 (기본적인 문제를 안은 미국 사회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덴티티(Identity)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성을 띠게되며 가버히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문제는 심사숙고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한인회의 또 하나의

특별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미국사회내에서 노년기의 부모 봉양의 문제와 함께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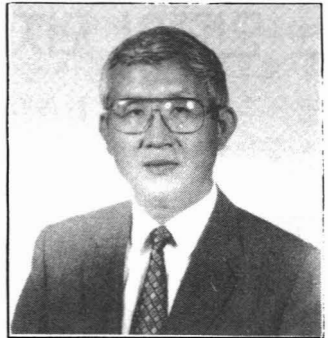
이와같은 내적인 문제들을 들추어 내면서도 새로히 대두되는 큰 문제는 팽창되고 성공하는 우리 교포사회가 미국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와 또 미국 사회내의 여러분야와 맺는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서 한인회가 보여야 할 역할을 정의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등 제 분야에 들어가서 순응한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경험하는것이며 미국 사회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문제도 심각히 경험하게 됨에 따라 교포사회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련의 문제가 큰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인회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보겠으며 앞으로 특히 강조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정부 기관에 한인회를 소개함으로써 유기적인 관련을 맺게하는 것이라든지, 정치활동에 참여 할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이라든지,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여러면의 접촉을 갖는 일등은 한인회가 관심있게 다루어야 할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같은 한인회의 관심범위는 한인회의 구조와 운영 방향에 상당한 논의와 연구를 요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의 임원만의 구성조직을 넘어 다수 위원회 조직의 체제를 갖고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전문성의 도입 또는 연구조직의 구성등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같은 과제는 지속적인 연구와 시행과정에서 성숙을 기할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은 우리 교포 사회가 이런 과제를 성공리에 잘 치루어 감으로서 여러문제에 대처하고 발전하고 희망을 심는 한인사회가 되지 않음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감싸는곳에 한인사회의 화합이 담길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연구하고 뜻을 모으는 곳에 한인회의 희망이 새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시애틀 총영사 고창수

격려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 "한인회보" 를 발간하시는데 대하여 총심으로 축하의 뜻을 보냅니다. 발간을 위하여 그동안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생각합니다.

미국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한편 두고온 고국의 산하를 그리는 마음을 우리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워싱턴주 시애틀에 단단히 자리잡고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을 베풀어 줄수 있는것은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시는데 대하여 경하를 보냅니다. 한인회보가 소식을 서로 나누며 우의와 화합을 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할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전통과 미국의 우수한 문화를 익히고 향유할뿐 아니라 이를 조화있게 융합 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꾸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0년 10월 29일

주 시애틀 총영사 고 창 수

신뢰 받는 민족이 되자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시애틀에 찾아 온지가 벌써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시애틀 교민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있다.

적은 수로 모였던 한인사회가 교민수가 많이 늘어나서 온 교민이 합심하고 단합하여 자체 회관 건물까지 구입하게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난날의 이민 생활을 뒤돌아보면 회노 애락을 함께 하면서 서로서로를 아끼고 외 로울때 위로주며 낙심될때 용기주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주고 받을수 있었던 우정의 주역들이 영화필름처럼 머리를 스친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만일 내가 언어가 같고 피부색같이 같고 풍속과 문화가 같은 동족이 모여살지 아니하는곳에 이민 보따리를 풀었더라면 15일도 외롭고 쓸쓸하여 견딜수가 없었을런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의 우정 을 베풀어준 온 교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거기엔 서로 믿고 의지할수있는 신뢰가 없었다면 이루어 질수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얼굴을 찌푸릴때도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귀찮았을때도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보기조차 싫을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되어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것이다.

사실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들의 삶은 서로 짜여있기 때문에 무슨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때에 따라서는 피해를 때에 따라서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피해와 절망을 안겨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언제나 도움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는 좋은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는곳마다 문제를 만들어 주위에서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분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어느곳이나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해를 가져오게 하는 분들도 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지붕 아래 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각기 다른 가풍속에서 자라서 각기 다른 희망과 목적 과 동기로서 미국땅에 이주해 온 나그네 인생들이다. 그중에서도 시애틀을 중심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우리 교민들은 서로서로가 인연이 맺어져 있는 것이다.

한번 맺어진 인연이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고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등을 돌리고 살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어쩔수 없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인회를 중심으로 온 교민이 하나로 뭉치는데 함께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교민들의 마음을 갈라 놓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있다면 단체 스스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따라가면서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단합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단체는 한인회가 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는 시애틀 교민이 아니요 나는 한인회 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회원이라면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한인회란 말인가 하고 외면하기 보다는 내 한사람이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 한 회원 으로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서 관심을 보여 줄 때 우리들은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인회는 권력기관도 아니요 법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기관도 아니다. 자원해서 일하는 봉사기관이기에 한인회 교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기관으로만 보지말고 내 한사람이 참여 하므로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인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여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참여 없이는 한인회가 발전하는데 매우 둔할수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복음화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세우신 교회에 불러 주셔서 복음을 알게하고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일터로 사회속에 분산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연결해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을 반사하라고 부패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다. 길ियो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모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미국사회에서 위대한 한 국민족임을 과시 하는데도 그리스도인 비 그리스도인을 논할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미국속에 있는 소수 민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훌륭한 민족으로서 국위 선양은 물론이거니와 신뢰받는 아름다운 국민으로서 미국땅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될것이고 후세들에게 한국사람임을 자랑할 수 있는 얼과 긍지를 심어 주게 될것이다.

이제 우리 교민들은 외면과 불신을 과 감히 떨쳐 버리고 참여와 신뢰로서 단합 성장해야 할때라고 본다. 우리 한국사람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위대한 국민이요 위대한 나라임을 자부하고 사는 우리 들입니다. 88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방방 곳곳에 조 국 대한민국의 강하고 위대함을 보였습니다.

그 위대한 조국의상을 계속유지하며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민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단합으로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분열보다는 뭉치고 불신보다는 신뢰하면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노력하여 국민이 되도록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데 동참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일들 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애틀 한인회 이사장 이 점태



주식회사 **에스콰이아**
ESQUIRE CO., LTD.
 FASHION SHOES & HANDBAGS
 WOMEN'S APPAREL
 YUN SUK
 WA BRANCH MGR.

(206) 588-0517

9312 SO. TACOMA WAY #125 TACOMA, WA 98499

한국 민족의 형제애

우리민족의 선사시대에 [우랄 알타이]족의 하나로 몽고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유랑하다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정착 할때까지는 다소의 혼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가 씨족 중심의 사회를 이루었으므로 한 혈통에서 분화와 통일을 함께 이루면서 마침내 단일 민족으로 형성 되었음은 확실한 것이다. 즉, 형제의식이 한국민족을 이룬 것이다. 백제 신라 고구려 3국이 분립하여 서로 공방을 일삼을 때에도 그들이 형제국임을 망각한일이 없었고, 결국에는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며 중국과 일본등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쳤고 천하를 석권한 대몽고에도 감연히 항거 하였으며 간악한 일제에서 벗어나 오늘의 민족국가를 이루기 까지 련련면면이 이어온 것이다. 이것은 한조상을 가진 한 형제라는 강렬한 의식과 자주독립의 기백이 우리 민족심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겨레 모두가 형제라는 [형제의식]이 투철한 까닭이다. 또 이의식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현제우애의 윤리를 확립하였으며 이[형제애]는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는데 원칙을 삼고 미덕으로 지켜온 것이다. 하나 우리사회가 근대에 와서 다양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모든사업이 경쟁이라는 현실에 부단치게 되다보니 자연히 경쟁에 열을 올리게 되고 그 치열함은 경쟁이 아닌 전쟁과 같은 극한으로 달리는 불미한일도 종종 있게된다. 아무리 산업화의 복합사회라 할지라도 형제의식까지 망각하고 형제우애 원칙을 벗어 난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고 하나의 비극이다 생존경쟁이 동족상잔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쟁사회 하나의 좋은 예를 들어본다면 스포츠 사회이다. 그세계는 모든경기가 경쟁이고 상대방과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스포츠맨십]이라는 룰이 서있음으로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의가 없고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되며 승부는 심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운동선수들의 맥박에는 현제애가 흐르고 있는것이다. 조건에 교민사회에 아름다운 현제애의 꽃이 핀 좋은예는 뉴욕의 우리

청과상의 사건이다. 몰지각한 일부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의 집단적인 행패와 박해를 우리 교포들이 일치단결 합심 협력의 동포애로써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생존권을 수호한 것이다. 또 그반면에는 어떤 지방에서는 단체의 주도권을 두고 모략과 중상으로 격렬하게 싸우다가 급기야는 미국 법정으로까지 비화시켜 민족의 수치를 사게하는 일은 실로 한심하고 우리 교포모두의 치부로 털굴이 붉어진다. 사회단체 활동은 순전히 봉사생활인데 거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간다. 우리 와싱턴주에도 사회단체수가 이제는 수십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 고교장의 단체들은 정말로 겸양지덕이 높아서 단체장 선출때는 너도나도 사양의 미덕이 오히려 지도자 선출에 고심하게되고 고역을 치르게 마련이다. 이 품위 있고 격조높은 정황 우리고장에 일대금지이고 아름다운 문화풍토이며 타에 모범이 될만함으로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진다. 본래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의 민족사회인데 개인중심의 이 미국땅에 와서 살다보니 개인들의 이해 득실에 몰두하게 되는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민족 전래의 [형제의식]이 희색되고 [형제애]를 물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교포 수가 이제는 5백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 미주만도 백만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마당에 개인중심의 생활방식에만 몰두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형제의식과 형제애로 굳게 뭉쳐서 이민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생활노력은 이기적이 아니고 교민전체의 공동체의 봉사생활을 집중시킴으로써 개척자로서의 꿈과 선구자적인 프라이드로 우리모두가 열심히 활동하여 이 땅에 한국의 얼을 심고 아름다운 형제애의 문화풍토를 이루어 보자.

1990년 10월 27일

워싱턴주 사회단체 협의회의장
김병섭

"땅끝에" 한 알의 밀알이 싹트던 날



황 동 규
<극동 방송 운영위원>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진리의 꽃처럼 피어나고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길이 환하게 트이는 것을 주님! 진실로 감사하오며 봉수교회의 박춘근 목사님과 온 교인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민족분단의 단장의 아픔과 한이 서린 반세기의 시공속에 피와 눈물로 드린 수 많은 영혼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옛날 우리나라의 "예루살렘" 평양성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2년전 그러니까 1988년 11월 20일 그곳 봉수교회의 첫 방문자가 되어서 그렇게도 소원했던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감사예배를 드렸던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멀고도 지척인 북한땅에 가고보니 민족분단의 안타까움이 새삼 뼈저리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잃어버린 조국 북녘땅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절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감격에 벅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새 성전의 마루바닥에 눈물을 뿌렸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쩌면 나의 생애중에서 격은 가장 충격적인 한 사건의 체험이요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산 간증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당시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중국, 소련등 공산권의 방송선교에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중에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렵듯이 듣고 마음을 설레이고 있었던 어느날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께서 발표한 이른바 "7,7선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남과북이 이제는 대립과 적대의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공영공존 하는 협력관계를 세워 나갈것이며 그정신의 일환으로 먼저 해외 동포들은 원하면 북한을 방문해도 좋다고 하는 선언이였습니다. 나는 그 선언이 발표 된후 어느날 새벽 경건의 시간(QT)에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북한을 방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정의 간단한 절차를 거친후

드디어 1988년 11월 15일 여권으로는 분단의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 공화국의 관광비자를 받고 북한 땅을 밟게된 행운을 차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신반의의 상태에서 그곳을 방문하게된 우리일행 5명은 교회의 문이 이미 열려 있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수 있으리라고 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으며 다만 평양에 교회가 실제 세워지고 있는가의 여부만이라도 확인 하기를 원했고 만일 새성전을 소문 그대로 짓고 있다면 그곳에 엮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던 순수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옵니까! 새성전의 의연하고 거룩한 모습이 한 실체로서 눈앞에드러나 보이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반가히 맞아주며 성전에 인도될 때 성전 안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실로 43년 만에 북한땅에 교회가 섰습니다.
우로부터 이광덕 목사(LA)
황동규 장로(Seattle)
박춘근 목사(봉수교회)
박요한 목사(LA)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내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은 2절 3절 계속되면서 새 장막을 올리는 그 영적과장은 급기야 내 가슴에와 다 메아리 치며 하늘의 보좌를 향해 울려 퍼져 나갑니다..

나는 평양의 하늘 아래에서 찬송을 처음 들던 그때의 벽찬 심정과 감회를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에는 지금도 어휘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봉수교회 새성전에 모인 백이십 명의 초대교인 사이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멀리 집에서 부터 가지고 간 나의 성경과 찬송책을 펴 들리고 할때 마침 뒤에 앉았던 말쑥한 노년의 교인 한 사람이 친절히 찬송장을 찾아 들고 나에게 건네준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83년 발행된 파란 하늘색 표지의 신약성서 그리고 또 한권의 찬송책!

"북한에도 성경과 찬송책이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과 감탄이 입속에서 맴도는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맴도니 앞의 시야가 급작히 흐려지며 정면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구름속에 묻혀 버리는듯 희미해집니다. 이제 생명의 떡,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그날 누가복음 제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본문말씀을 통해서 북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절 "메시지" 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부터 "메이프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102명의 천도교들의 이야기로 설교의 말머리를 끝내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미국역사의 이야기와 훌륭했던 미국인 조상들의 신앙생활을 북한 땅에서 들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지기에 듣는 나의 귀를 의심 하리 만큼 신기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나 사상이나 체제나 원한 까지도 인간의 본질과 내면의 세계를 추구 하는 높은 차원의 신앙 앞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한 없이 무력해 진다고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비교적 자상한 감사절의 유래를 말씀하신후 설교는 이렇게 계속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만났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사 모두 깨끗게 치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발아래 엎드려 사례하게되니 그때 예수님께서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 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일어 나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의 감사 행위의 고귀함을 칭송하시고 그의 육신적인 병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전 일어났던 이 한사건을 통해서 40여년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첫번째 맞이하는 감사절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 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주실 유일한 길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 자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심판 받지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였습니까!



봉수 교회 교인과 같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미주 교포

찬송을 부르다 말씀을 전하다 하시는 은혜 참만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설교는 그 열기를 더 해가며 이제 그 결론으로 접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같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다. 은혜를 잊어버린 아홉사람의 유대인이 되지 말고 비록 천대받고 사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 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발아래 엎드려 사례하고 영광을 돌렸던 사마리아인의 본을 받아 우리의 생명 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P. 50 계속)

< 미국에서의 생활과 아이덴티티 무엇이 문제인가? >

편집자주: 아래는 지난 11월 9일 웨더럴웨이 선교교회에서 가졌던 공개토론회 "미국에서의 생활과 아이덴티티 무엇이 문제인가?"의 발제요약문으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지휘하신 어명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형찬

(West Washington Univ. 교수)

서론

이민을 연구하는데에는 밀고 당기는 요소를 감안한다. 즉 보내는 장소에서 사람을 미는 요소와 받는 장소에서 당기는 요소, 그요소들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교육, 경제, 문화 생활수준 등등.

또는 이민을 세계 정치 경제체제의 일환으로도 볼수있는것이다. 그래서 19세기의 아세아인의 미국이민은 열강식민지의 일환으로서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볼수도 있다. 이런 여러면에서 이민의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현실 속에서 찾아볼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민의 의미

이민의 의미는 이민은 개인 또는 집단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수 있고 또 변할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이며 공동체적인 의미는 이민이 살고 있는 사회내의 역사 및 사회적조건과 이민들과의 변증법적인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이다. 즉 이민의 의미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다른 민족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우리의 Community가 무엇인가? 우리의 민족성(Ethnicity)이 어떤것인가 하는것과 분리 할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의미가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의 identity, Community와 Ethnicity는 복합문화를 가진 미국 사회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Acculturation(문화이식)의 경험을 쌓아가며 배우며 성장하며 사는가에 달려다.

문화이식

두가지의 질문

- 1) 문화유산, 문화동일성과 문화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 다른 그룹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통합	동화
아니다	분리	변두리화

만약 통합으로가서 Korean-American ethnicity를 이룩한다면 즉 우리의 문화유산 문화동일성과 문화 특징을 최대한도로 살리며 또 다른문화 즉 미국 사회의 복합문화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받아 들인다면 그 내용이란 어떤것인가?

Korean-American Identity

미국에 있는 한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한국계 미국인 즉 Korean-American이될려면 어떠한 실존적인 생활을 하며 생활철학과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여야 하는가. 한국계 미국인의 Identity는 같은 목적과 운명가진 사회 문화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공동체의 내용으로는:

a) 문화적 전통의 가치관

충(忠). 충이란 마음이 중심에 잡혀서 변하지 않으며 인간내에 존재하는 도덕을 즉 Kant가 말하는 Categorical Imperative와 같이 도덕이 사회 변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b) 경(敬)이란

남을 존경하는 것이다. 남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다.

c)인(仁)이란

두사람 이상이 추구할것으로 혼자서는 할수없는 인간 사회의 가치 체제다.

d) 지식이란

어떤 재물을 위한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힘이 아니라 지식은 인간을 동물적인 것에서 자유케하여 도덕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방도이다.

e)언어

인간 사회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사회의 문화 전통을 유지 하고 후세에 전달한다. 언어란 인간의 경험 세계를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사람의 사고는 그사회의 언어를 통하여 형성 되면서 그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를 맺게한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모르고도 Ethnicidentity를 나누어 가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유대인이면 다 같은 Ethnic identity를 가질수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말을 몰라도 한국적인 감정을 가질수 있다. 즉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동경한다든지 그러나 이런 identity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identity와는 전혀 다르다.

Korean-American identity의 내용을 볼때 한국문화의 전통 및 유산으로는 가치관과 언어 등을 들을수 있으며 이런것을 Community의 교육, 문화 종교등의 조직을 통하여 유지하고 계승시킬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미국의 가치 및 전통을 어떻게 수용할것인가. 물론 많은것을 지적할수 있으나 다음 세가지 안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 가치관

1) 민주화

권위주의의 동양 문화속에서 산 우리는 머리카락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천이 힘들다. 물론 어느 기관이나 권위가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권위는 봉사와 협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민주화는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자주성등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2) 의사소통

권위주의 사회의 병폐의 하나는 의사소통이 안된다. 의견은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의견이란 좋고 나쁜것을 떠나서 서로주고 받아야만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게된다. 그렇게 하기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남의 말을 존중하고 남의 말을 듣는 태도를 배양하여야 할줄로 안다.

3) 봉사와 협조

우리는 한국사람은 각 개인은 잘나고 똑똑한데 서로 협조하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협조 하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는 똑똑 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다. 그렇다면 왜 서로 돕고 남을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민주시민이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제라도 이 자격을 배우고 연마 하여만 하겠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여야 하겠고 또 특히 조직 생활을 배양할수있는 한인사회 조직인 교회가 압장을 서야 하겠다. 전위를 세울려는 교회는 성서적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한인사회의 장래

지역사회 (Community)

1)영역 지역사회(Territorial Community)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것이다.

2) 심리적 지역사회(Psychological Community)

이 사회는 우리가 미국에서 소외감을 느낄수록 더 강하여지게 될수도 있다. 즉 우리가 공동감- 서로 뭉쳐서 살며 상부상조 하여야 한다-이 생기게 되면 이사회는 더 발전할 수 있다.

3) 연관적 지역사회(Association Community)

이 연관적 지역사회는 심리적인것과 병행하여 발전할것이고 또 세분화(Segmentation)되며 서로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직 할것이다.

직업

이민 세대의 직업은 첫째 이민 오기전보다 신분이 낮은것을 택하게된다. 또 백인보다 수입이 적고 그리고 실업율이 높다. 다음에는 전문직이 적고 소상인이 대다수다. 그리고 한국서 보다 미국에서 신분이 낮은 직업을 가진 남자일수록 집에서 횡포를하며 아내를 구타한다.

제 2세는 전문적으로 과학이나 공학등을 택하는 경향이 많은데 미국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2세의 사회진출을 생각하여야 하겠다.

가족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차이를 무시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가치관에서의 차이를 주시하여야 하겠고 남편과 아내의 상반되는 신분적이며 감정적인면을 주시하여야 하겠으며 노인의 문제도 주시하여야 한다.

세가지의 교회

1) 이민세대 만의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교회는 너무도 한국적인 권위주의와 "신령주의"에 국한한 인상이 많다.

2) 이민세대와 그 자녀들의 교회

이과정에서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즉 1.5세대와 2세대를 어떻게 지도하여 앞으로의 교회를 지도하여 나갈 지도자 양성을 할것인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다음 단계로 갈것이다.

3) 이세의 한인교회

"한인계 미국인"의 교회

언론기관

언론도 사업임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너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등을 추구할것은 아니다. 언론의 제일 목적은 1)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2) Public Opinion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3) 미래 사회상을 위한 의견을 표현하게하는 매개체다.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미국사회의 변동과 한인공동체 의식 "

Evolutionary Perspective on Ethnicity and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김혁래 (U.W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Introduction

두가지 점을 요약하면, 첫째로 미국사회 내에서의 인종문제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논할 것입니다. 둘째로 미국사회의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인종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속에서 오늘날 미국내 한인의 ethnic identity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며,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Korean-American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Korean-American Community Consciousness)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2. Ethnicity in Evolutionary Perspective

첫째로 미국사회의 인종문제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미국은 이민의 사회입니다. 초기 미국 이민은 대다수 유럽인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다수 유럽 인종들간의 융합은 그들의 유사한 문화 전통 배경하에서 자연스러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시각은 결국 모든 이민자들이 한데 모여 각자의 문화에 대한 집착보다는 서로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American Culture를 성립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시각은 각 민족의 특성이 동화 (assimilation)되고 또한 용해되어 한데 뭉쳐지는 것으로 Melting-pot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각자의 ethnicity가 없어지고 새로운 그 무엇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melting-pot 시각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인종 갈등-흑백간 그리고 흑인과 소수 민족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ethnicity는 미국사회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중요한 이슈로 재등장하게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재등장하게되는 ethnicity에 대한 시각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모임의 성격상 다원주의(pluralism)라는 시각을 오늘날과 앞으로의 미국사회의 인종문제에 대한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의 전형적인케이스는 스위스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각 민족간에 평등과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즉 다원주의의 시각은 각 민족그룹

별로 나뉘는 사회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평등한 사회관계로의 지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는 Vegetable soup이라든가 Salad bowl이라고 표현 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각 민족그룹의 ethnicity가 상실되기보다는 보존된다는 측면이 강조되며, Americanism보다는 ethnic diversity가 강조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원주의 사회의 진화를 가져오기 위하여는 각 민족간 경제적인 지배관계나 불평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사회는 아직 이러한 이상형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여하튼 이민사회는 미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여겨집니다.

요약하면 미국사회내의 인종문제에 대한 시각은 ethnicity의 상실에 근거한 melting-pot이라는 완전 동화나 용해의 시각으로부터 각 ethnicity를 보존하고 추구하는 다원주의 사회라는 시각으로 변화된다고 봅니다.

3.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둘째로 이러한 시각의 변화속에서 미국내 한인의 ethnic identity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알아 보고, 앞으로의 2세와 3세를 위한 한인공동체 의식 (Korean-American Community Consciousness)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A. Ethnic Identity

1965년 이민법 개정이후인 1970년대, 1980년대에 많은 한국이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한국이민의 특성에 대하여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국이민은 중국이나 일본이민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민은 19세기말 이후 이루어 지면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제재와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오면서 오늘의 이민사회를 구성한 반면 한국이민은 1965년이후 그러한 제재나 차별없이 이민 1세의 정착이 이루어 집니다. 둘째로 이러한 이민 1세의 정착은 특기할 사회 적응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중에 특히 다수의 전문직 고학년 소지, 집중적인 소기업에의 종사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한민족간의 단체활동 및 종교조직, 특히 교회의 급속한 성장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형태의 특성들이 나타내는 시사점은 오늘날 한국이민의 적응이 미국내 한국인, 즉 Korean in America들간에 만 국한 (confinement)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반면에 미국사회에서 자라나는 1.5세, 2세들의 오늘날 적응은 Koreanism이나 전통적가치관에 대한 집착보다는 Americanization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이민 1세의 Koreanism에 대한 집착과 그 테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과 이민 2세의 Americanism하려는 경향과의 gap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gap은 결국 좁게는 가정내에서의 세대간 격차를 야기시키며 넓게는 미국내 Korean-American으로서의 ethnicity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B. Korean-American Ethnicity

이러한 오늘날 미국 사회내의 한인 identity의 현주소하에서 저는 진정한 Korean-American ethnicity의 출현을 위하여 한인 공동체 의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과연 한인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Korean-American ethnicity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 미국사회속에서의 한인사회내에서 제기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몇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이제 나름대로 정착해 나가는 이민 1세의 미국사회내에서의 공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2. 이러한 공존의 인식하에서 기존사회 단체 및 종교조직의 포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이는 결코 Koreanism에 대한 애착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집착, 그리고 한인만을 위한 사회단체나 종교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소수민족뿐 아니라, 다수민족과 함께 활동하는 포괄성을 지녀야 하리라 봅니다.
3. 앞으로의 2세와 3세를 위하여 각 사회단체 및 종교조직은 Korean-American subculture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들을 위한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앞으로의 Korean-American ethnicity를 만들어갈 주체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요점은 다원주의사회로 나아가는 이 미국내에서 Korean-American ethnicity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며, 한인 공동체 의식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앞으로 우리모두가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Korean-American 민족의식의 지표
김성철(U.W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과정)

[1]-1 Korean-American: Korean-in-America와는 구분됨

[1]-2 민족의식 (Ethnicity)

허원무의 정의: 실제 혹은 가공으로 근원운영 동일하다는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합적인 사회문화적 실체(A collective sociocultural entity of those

who share a sense of common origin and destiny, whether real or imag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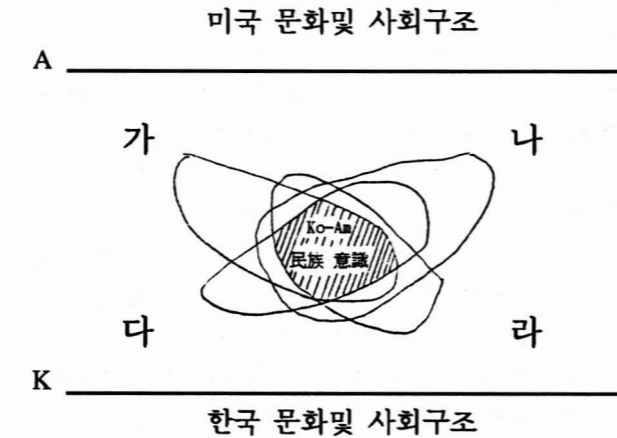
* Korean-American ethnicity: ethnicity of those who are Koreans and at the same time Americans

* Identity(정체성; 타인에 의한 인식 문제)와는 구분
[2] 이민역학 (Immigration Dyna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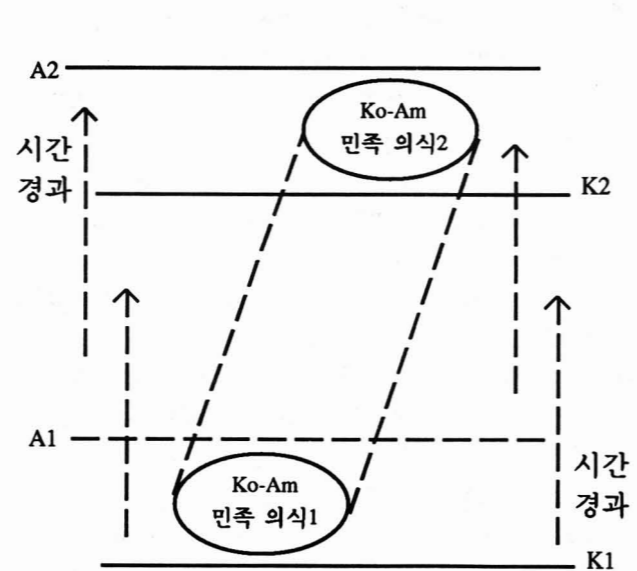
이민은 주어진 상황조건(enviromental conditions)가 개개 이민자의 상황조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간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진행됨 (이민을 포함한 모든 인간행위 자신에 학습되어온 문화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됨). 미국이민의 경우 상황조건은 미국 및 한국의 문화사회구조가 주가 되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

[1]과 [2]에서 도식화

(1) 특정 시점에 있어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결(少結)] Korean-American 민족의식의 개념은 유동적인 것

[3] 1965년 미 이민법개정 이후 한국인 다수이민

(1) 1세대: 자문화에서 "떠남" (출발의 자의성), 타문화에서의 역경, 입신, 타문화에서의 좌절, 자문화에의 향수 ---> Korean-American 민족의식 창조의 필요성은 실감하지만 (가족문제, Community 활동 교회 활동과 관련하여), Korean-American 민족의식과 Korean-in-America/Korea 민족의식간에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문제는 1세대들이 한국출국후 한국의문화, 사회구조 가치관 변동을 간접으로 체험하여 자신들이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하고 1.5세~2세에 주입시키는 지식이 출국시 한국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 문화의 지연 -

(2) 1.5세~2세: 이민의 임의성, 문화적 혼란 (무엇이 자문화인가?), 출세에의 압력, 미국문화에서의 좌절(Identity crisis)... ---> Korean-American으로서 민족의식 정립이 심각한 문제: 어떤 한국/미국 문화적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4] 바람직한(?) Korean-American 민족의식 정립을 위해

(1) 민족의식이 유동적인 점을 인정하고 1세대에서 바람직한 "한국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주로 자신이 이민을 당시 한국사회 구조 가치관에 기초한) 주입에 융통성을 가질 것

(2) Community조직(한인회, 교회...) 들이 주동이 되어 Korean-American community 범위를 넓어서 모범적으로 바람직한 사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1.5세~2세대들이 스스로 Korean-American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할 것.

세대간의 언어장벽과 갈등
이재영 U.W. 수학과 4년

미주 한인사회에 독특한 성질을 부여하는 1.5세가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가지고 있는 1.5세로서 겪었던 생활이 단면적으로나마 세대간의 언어 장벽과 갈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4살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성숙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겪은 미국생활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환상의 나라를 깨뜨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어 장벽의 벽이 너무 높게 보였으며, 가정에서는 세대간의 벽이 너무 두꺼웠습니다. 그렇다고 의논을 할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와서 이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을때 저는 나의 동료들

언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나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공부, 같은 한국사람이 영어를 쓰지 않고서는 사귀수 없었던 친구들, 영어를 하지 못하고 미국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하여 놀림을 받았던 나의 이민 첫해의 상처가 아직도 제 가슴속에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없이 1세대와 2세대 사이에서 생활하는 저에게 새롭게 변한 언어 장벽과 갈등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사회의 결과로 나온 2세대와의 대화는 없다 시피되어있고, 권위주의적, 강요만하시는 1세대분들을 외면하는 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발견은 저에게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같은 피, 같은 역사,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다원적인 사회에서보다 더 동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왜 그러하지 못한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는 말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쓸모없는 말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동질성과 단결성 소위 "한인 공동체 의식"을 가져다 줄 것인가?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년것 세대간의 언어장벽과 대립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한인 공동체 의식" 달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국사회속의 한인 공동체 의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칭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입니다.

다질적인 문화, 인종, 혹은 민족으로 구성된 커다란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은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지배 위치에서 우리의 권리와 자주성을 찾기 위해선 단결해야 한다는 결론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민족 단체로서의 권리는 그 단체에 속해있는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며 따라서 개개인의 미래가 이러한 단결성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과언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달성 즉, "한인 공동체 의식"의 걸림돌이 되는 세대간의 언어장벽과 갈등,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대간의 언어장벽으로 일어나는 갈등은 한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서, 문화전달의 도구로써 더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우리가 여기에 있기 까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1세분들, 그리고 1.5세가 겪었던 한국역사와 사회의영향과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미국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1세가 받는 영향과 1.5세, 2세가 받는 영향이 너무나 다른결과를 가지고 오며, 따라서 세대간의 갈등과 대립이 미주 한인사회의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방도로서 "한인 공동체의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가 "한인 공동체 의식" 을 달성시키는데 필요할까요?

먼저 세대간의 언어장벽과 갈등의 필연적인 해결책은 대화라고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선 서로가 상대방이 서있는 위치와 현실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선 상대방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1세는 1.5세와 2세가 사는 미국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2세는 1세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워야 하겠지요. 그리고 1.5세는 그들이 컸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국을 배워 1세와 2세의 사이를 보다더 좁혀 나아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대간의 언어장벽과 갈등의 해결책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각 세대마다 대화의 광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1세분들은 미국을 보다 더 이해하는 방법으로 미국사회 구조, 미국정치, 미국경제, 미국법에 대해서 토론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느낀점은 1세분들이 너무나 한국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며 당신들의 고향을 못잊어 하시는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1.5세와 2세로부터 여러분들을 더욱더 고립시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1세분들이 우리 1.5세와 2세에게 원하는것들, 즉, 한국적사상과 가치관이 우리가 피부로느끼며 자라는 문화를 알지못하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때에 우리 1.5세와 2세에게 거부반응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1.5세와 2세의 위치를 존중하지 않는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1세분들은 1.5세와 2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함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미국을 이해함은 필연적인 1세분들의 자세가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2세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 부모님을 즉 1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2세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소위 우리는 "뿌리"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한국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며, 우리가 얻으려하는 민족단체의 권리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세들은 1세분들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1세분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써 미국이라는 거인을 대적하기란 불가능하다하여도 틀리지는 않을것입니다. 흔히 2세들은 자기 자신들이 미국사회에 동화 되었다는 환상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미국사회가 동양인을 받아들일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세는 동화의 문제를 도모하기 이전에 민족단결의 필요성을 더 생생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2세는 2세의 뿌리를보다 더 이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1세들과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를 위시한 1.5세가 하여야될 중대한 과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1.5세는 이중문화를 이해하고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까닭에 한인 공동체 의식형성에 더 커다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독특한 위치에서 우리는 한국을 보다 더 이해 하여야 하며 우리가 살아 나아갈 미국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우리 미주 한인사회에 중대한 문제요, 과제라는것을 인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5세가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 이중언어를 진보적, 즉 미주 한인사회에 이바지 하는 자세 이것이 자기 희생이 아닌 자기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우리가 미국사회에서 살아갈길은 오직 단결이며 이 단결의 중요성은 우리의 Identity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1.5세는 1세와 2세 사이에 있는 대립의 벽을깨는 망치역할을 하여야 하며 1세와 2세와 서로 통과할수있는 문역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1.5세가 1세분들과 2세의 사이에 문역활을하기 위해선 문이 만들어지는 목공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공소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는 목공소는 우리 1.5세가 자연스러운

이성교제, 친구교제를 이룰수있는 계기와 공간입니다. 현재 미주한인사회에 심각한 문제로써 부각되는 청소년 문제는 우리 젊은세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교제를 할수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1세분들은 우리 젊은세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므로써, 이러한 만남의 공간이 성 문란, 사회질서 파괴로 나타날것이라는 염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1.5세의 일원으로서 단언코 이를 부정하는 바입니다. 이원 문화속의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윤리, 이상을 추구하며 우리의 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1.5세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다른세대와 대화의 불이 붙었을때 우리는 진정한 일군으로 미주 한인사회에 이바지 할수있는 위치에 설 것이며, 두 세대사이 대화의 벽을 깰수 있는 망치가 되고, 서로 통과할수있는 문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을 같이고민하며, 풀어나갈수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에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를 여러 1세분들과 각 사회단체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2세의 자화상

김덕황(현 보잉회사 근무)

약 30여년전 순수한 나의 자유의사로 미국가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결정해서 이곳에 왔으며, 공부를 끝내고난 후에도 나의 자유의사로 이곳에 머물것을 결정한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한 모든책임은 나에게만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집 아이들은 자기들의 의사가 아니라, 저희들의 의사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는 달리, 다른 문화 환경에서 그들의 인생을 출발했어야만 했던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오늘날의 위치나, 훗날의 위치에 관한 책임은 그들에 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곳에 머물게 한 저희들에게도 많은책임이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읍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들이 행복한지 더욱 예민하게 관찰해 왔던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때쯤인것 같습니다. 어느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 나로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되는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복종하면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했던것입니다. 그때 맑은 하늘에

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아들이하는 말이 "아버지! 존경은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사람은 그존경을 힘써 벌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의 아들이 모든일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아들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평소 더욱 예민하게 관찰한다고 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읍니다. 그때 부터 한층더 힘써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보고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집 아이들, 또 그들의 친구, 또 우리 교회 공동체안에서 만난 젊은학생들, 다해 약 100여명의 아이들을 관찰해서, 도대체 우리들 2세가 자기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혹은 자기들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평소때 느낀것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좁은 범위 안에서, 한정된 눈으로 보았기에 일반성이 없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2세들이 크게 나누어 아래 셋 Group중 한 Group의 사람으로 볼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첫째 Group은 Banana처럼 밝은 노랑고, 속은 흰 사람 인것입니다. 이 Group에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옛날에 공부하러 왔던 부모에게서 난 사람들이 많고, 이곳에서 계속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특색의 가치를 무조건 받아드리지 않고, 비판적이고, 어떤 이성애의해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roup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국인의 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Group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자기는 다른 흰 미국아이들과 꼭 같다고 생각하는데, 외모때문인지 무었때문인지는 몰라도, 자라면서 자랄수록 주위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과 같은사람으로 받아 드리지 않는다는것을 느끼기 시작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Identity에 혼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번째 Group은 이곳에서 나고, 자랐으나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든지, 혹은 이곳 말을 못하시는 부모님을 갖은 사람들입니다. 이 Group에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특색의 가치를 희미하게 인정하면서도, 자기 부모들이 말을못해 이곳 사회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느끼면서, 자기 부모들을 무시합니다. 이래서 미국아이들 사이에서 자기들은 인정받아 만족을 채우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 Group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라면서 자랄수록 주위 흰 사람들로 부터 인정 혹은 소속감에 의심 을 갖기 시작하고, 또는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끼리